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562.72 (-273.08)	803.98 (-17.27)		
↑ 금리 (미국 9년)	↓ 환율 (한·달러)		
3.930 (+0.052)	1366.05 (-4.35)		

‘치솟는 금리’ 빛 내서 빛 갚는 기업

20대 기업집단 회사채 20.8조 발행
만기도래액 32.9조, 12조 빛 갚아
SK·롯데 등 14곳 회사채 순상환
순발행 삼성·한화·한진·CJ 4곳 뿐

국내 대기업들마저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빛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과 글로벌 정
세 불안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
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와 하나증권에 따르
면 올해 들어 7월까지 20대 기업집단이
발행한 회사채(금융계열사·영풍 제외)는
20조78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만기도래액이 32조8823억원으로 12조
930억원이 빛 갚는데 들어갔다.

그룹별로는 SK(-4조4508억원)의순상
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롯데(-1조
3926억원), LG(-1조3711억원), HD현대
(-1조1080억원) 등 18곳 중 14곳이 회사
채 순상환을 기록했다

반면 회사채를 순발행한 곳은 삼성·한
화·한진·CJ 네 곳뿐이었다. 삼성은 1조
6450억원(만기 1조1550억원)을 발행해
4900억원 순발행을 기록했다. 한화는 1조
979억원의 만기도래에 대응해 2조970억
원을 발행하면서 1180억원을 조달했다.
한진과 CJ도 각각 2885억원, 2972억원의
순발행했다.

조달 비용 상승 탓으로 해석된다. 금융
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를 뜻하는 크레딧 스프레드(A
A-3년물 기준)는 이날 기준 0.670%포인트로, 지난해 말(0.4~0.5%포인트) 대비 크게 벌어졌다.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커졌다는 뜻으로, 기업의 상환 위험을

더 크게 본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사는 데
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 결과다.

조달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
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로 0.
2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시장금리
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그나마 형편이 낫
다. 지난 7월 발행된 일반 회사채는
86.3%가 AA등급 이상 우량 물이었다.
이처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투자
자를 찾기 어렵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은행대출이나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만
기가 짧고 비용이 큰 수단에 의존할 가능
성이 커진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
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
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위한 인
사이트를 제시하기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
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장관 면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스콧 베스턴(왼쪽 세 번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면담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알테오젠, 노바티스와 4.4조 ‘빅 딜’… 올해 네 번째

‘ALT-B4’ 기반 피하주사 의약품
개발·상업화 옵션·라이선스 계약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독자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을 이전하며 올해만 네 번
째 빅딜을 성공시켰다.

알테오젠은 노바티스와 ‘ALT-B4’ 기
반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옵션·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
혔다. 이번 계약으로 노바티스는 알테오
젠의 ALT-B4를 적용해 복수 바이오의
약품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상업

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옵션 형태로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32억 2300만 달러(약
4조 4165억원)에 달한다. 노바티스가 모
든 옵션을 행사하고 단계별 개발·상업화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받
게 되며 상업화 이후 발생 및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는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
환하는 원천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기술
을 구현한 물질이다. 세포외기질의 히알
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함께 투여

되는 치료제의 체내 확산과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알테오젠은 올해
들어서만 총 4건의 ALT-B4 라이선스 계
약을 성사시키며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대원 알테오젠 대표는 “노바티스가
계약에 앞서 다양한 치료 영역(모달리티)
에 ALT-B4를 적용하는 평가를 사전 수
행했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력과 사업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日 기업과 반도체협력 검토 “전력·용수 풍부한 곳 고려”

최태원 SK그룹 회장

키옥시아와 공동생산 가능성 언급
연합 성사시 합산점유율 36% 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일본 키옥
시아와의 반도체 공동생산 가능성을 언급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
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을 새로운 생산거
점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서 “키옥시아의 미래 전략에 SK하이닉스
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언제든 파트너가 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키옥시아와의 협력 방안으
로 공동 생산과 연구개발(R&D), 공급망
공유 등을 거론했다. 키옥시아가 미국 샌
디스크와 합작을 통해 제품을 공동 생산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 공장 건
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일본 내 생산기지 검토 배경에는 생성
형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
족이 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용 메모
리반도체 공급이 수요보다 20~30% 부족
하다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
렵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기반도
강점으로 꼽았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제조업을 중시하는 산업 환경도 갖



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일본 전
역을 살펴보고 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
하고 있다”며 “리스크
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일본은 매우
매력적인 후보지”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복수 지방자치단체도 SK 반도
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는 “이미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공장 유치 제안을 받고 있다”며 “연내
구체적인 투자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
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밝
히지 않았다.

만약 양사의 연합이 성사될 경우 글로
벌 낸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해 2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22%), 키옥시아
(14%) 순이다.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
의 합산 점유율은 36%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
노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
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
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S
K하이닉스는 한국 내 반도
체 생산 시설 확장에도 54조
원(약 39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여성계에 진보정당까지 반발 심화…용혜인, 첫
출근 /사진 뉴시스
▲“의대 탈락, 서부권 민심 달래야” 민행배 시장,
통합TF 구성

▲이 대통령, 오륙도 인근 예인선 전복사고에 “가
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정부, 3일 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국무총리 발표

▲홍준표 “함량미달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으로…
사람이 그리 없나”
▲개혁신당 천하람, 부산서 ‘잘못된 공천’ 사
죄

정재현 CEO, 인재 찾아 대학으로… “생산성 J커브 극복”

〈SK텔레콤〉

SKT-서울대, AI 공동과정 수업
정 CEO, 40년만에 모교 강단 올라
“AI 혁신 현장서 동료로 만나게 되길”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생산성 J커브’를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단기간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하자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정재현 CEO가 지난 1일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가 10년째 이어온 AI 공동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첫 수업이다. 주제는 ‘AI 시대의 선택과 기회’로, 정 CEO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이후 40년 만에 모교 강단에 섰다.

이날 정재현 CEO는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의의 문을 열었다. 그는 AI의 출현으로 누군가의 하루는 240시간, 2400시간이 되기도 한다며, AI가 바꾼 시간의 밀도로 인해 우리가 알던 원칙들이 파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자동차 대중화에는 60여년, 휴대폰은 10여년이 걸렸지만 첫



정재현 SK텔레콤 대표가 1일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대학(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AI 전환(AI)의 J커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GPT는 단 1개월 만에 사용자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AI 투자 규모 역시 산업혁명 시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이날 특강에서 정 CEO는 경제학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 물량이 조정된 시차로 인해 오히려 악화된다는 ‘J커브’ 이론을 인용했다. 그는 “불편함의 골짜기 앞에서 돌아서면 영원히 곡선의 왼쪽에 머물지만, 이를 견뎌낸 조직은 어느 순간 J자로 꺾여 올라간다”며, “낮설게 보기, 극

한 마주하기, 불편해지기가 바로 이 골짜기를 건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I를 도입하면 곧바로 효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재교육, 업무 재설계, 데이터·조직 정비 등 기술혁신과 생산성 사이의 시차로 되레 떨어진다. 그러나 이 침체기를 견딘 조직은 어느 순간 생산성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지론이다.

‘낮설게 보기’는 “이 일은 꼭 사람이 해야 하는가”, “이 순서가 최선인가”처럼 당

연하게 여겨온 전제를 의심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정 CEO는 SK텔레콤의 모든 업무 앞에 “AI를 전제로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극한 마주하기’는 스스로를 극한 상황에 밀어 넣는 도전을 뜻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면 오히려 동력이 된다. 회사가 제한된 GPU로 6880억 파라미터급의 초거대 독자 AI 모델 ‘에이엑스 케이투(A.X K2)’를 개발했다.

‘불편해지기’는 AI 전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SKT의 한 개발자는 고객 요청에 따른 시스템 수정 업무를 50시간씩 들여 처리해왔다. 이 업무를 AI로 수행하려 하자 처음에는 오히려 500시간 넘게 걸렸다. AI에 이진트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며 수백 번 검증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일이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 CEO는 “AI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은 시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통찰력과 공감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도메인 전문

성을 갖추고 AI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이가 도메인 간 경계를 넘어 기술과 산업, 사람을 연결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AI 시대 인재의 4가지 조건’을 인용하며, ▲본질을 통찰하는 힘인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고 실패해도 다시 배우는 ‘적응 근육’ ▲AI가 끝내 갖기 어려운 ‘공감 근육’ ▲체화된 경험을 가치로 만드는 ‘신체 지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 가지 모두 코딩 능력이 아니다. 기술은 AI가 점점 더 잘할 것이기에, 사람만이 가진 근육이 인재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끝까지 사람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10년 전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물었다면, 오늘 우리는 ‘AI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10년 뒤 이 질문의 답을 만들게 될 여러분과 역동하는 AI 혁신 현장에서 동료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CJ올리브영 남포 타운 전경.



CJ올리브영 밀락더마켓.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비수도권 K-뷰티 거점 확대

지역 특성 반영 매장 연이어 선포
100평 이상 매장 비수도권 전면 배치

CJ올리브영이 부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대형 타운 매장과 특화 매장을 연이어 선보이며 비수도권 K뷰티 거점을 구축한다. K뷰티 랜드마크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28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비수도권 최대 규모 타운 매장인 ‘올리브영 남포 타운’을 확장 이전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디자인 특화 매장 ‘올리브영 밀락더마켓점’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최전선에서 대응하기 위한 ‘리테일 고도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 지난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310만 명의 외국인이 찾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어난 242만 명이 방문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크루즈 관광객만 99만 명으로 2025년 25만 7000명 대비 약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광안리 수변 상권 내 위치한 ‘밀락더마켓점’은 체질 K뷰티 상품을 실은 가

상의 선박 ‘올영호’를 주제로 꾸며진 특화 매장이다. 수산물 직판장을 연상시키는 이색 공간 연출과 대용량 진열 방식을 도입했다. 브랜드 최초로 냉동고를 도입해 F&B 및 웰니스 큐레이션을 강화하고 심야 야간 상권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을 23시까지 연장했다.

원도심 상권에 들어선 ‘남포 타운’은 기존 단층 200평에서 총 4층에 900평 규모로 확장한 상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했다. 올리브영의 대표 글로벌 특화 매장인 서울 명동의 ‘센트럴 명동타운’을 모델로 삼아 외국인 쇼핑 패턴을 반영했다. 비수도권 최초로 뷰티 컨설턴트 3명을 배치해 피부 진단 카운슬링을 제공하며, 크루즈 관광객 방문 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공간 대형화·특화 전략은 실적 지표로도 확연히 입증된다.

올리브영은 올해 2분기 실적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22%에 달하는 증가세를 올렸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 수가 지난해 2분기 1393개에서 올해 2분기 1367개로 일부 효율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나타났다. 거점 점포의 대형화 및 특화 매장 전환을

통해 점포당 운영 효율을 높이고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6년 비수도권 신규 점포, 리뉴얼 및 물류 인프라 강화 등에 총 123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매장 구축 관련 투자를 전년 대비 36% 늘렸다.

올해 신규 오픈 및 리뉴얼 예정인 100평 이상 대형 매장 78개 중 43개를 비수도권에 전면 배치해 국내외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관광지인 제주를 물론 강원, 경상, 전라 등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는 비수도권 요충지에서 해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K뷰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노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글로벌 관광객이 집중하는 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주요 상권 고유의 매력과 정교한 고객 데이터를 결합한 오프라인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K뷰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 쇼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사업재편 나선다

회생채권자 75.9% 찬성률 보여

기업 존속의 갈림길에 섰던 홈플러스가 채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안 가결을 선포한 뒤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회생 폐지 가능성을 벗어나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모든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견결전액이 찬성해 찬성률 100%를 기록했고, 주주조에서도 의견결전을 행사한 주식 전량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총의결권 약 2조

4816억원 가운데 1조 8836억 5430만여원이 찬성해 75.9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가결 기준인 3분의 2(66.7%)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은 장기 분할변제에 따른 손실과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번 회생안 가결에도 기업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유동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가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납품대금과 미지급 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변제 동의율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64.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익채권자와의 협의와 유동성 관리가 회생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공급망 정상화도 과제로 꼽힌다.

/김서현 기자 seoh@

지난달 기업대출 884조… 한달 새 6.2조 ↑

≫ 1면 ‘치솟는 금리, 빚 내서’서 계속

고금리로 회사채 발행은 위축됐지만, 기업들의 은행 대출은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883조 9647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877조 7085억원)보다 6조 2562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대출 증가는 대기업(195조 9746억원)이 주도했다. 특히, 대기업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25조 6754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업대출 순증액의 약 65%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금리 급등 후폭풍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도 나

온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연 5% 이자를 주는 새로운 채권이 나오면 투자 매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겐 채권 투자를 마무는 경향이 생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 재개에도 높은 금리에 대한 발행사 부담으로 발행은 제한적”이라며 “높은 시장금리로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과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한 조달 선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李 정부 ‘연금개혁’ 시동… 기초연금 차등·퇴직연금 기금화

기초연금 저소득층 차등지급 도입
부부 감액 완화·지역연금 대상 확대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지원
외사 추납 기준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
기금형 퇴직연금 2028년 도입 추진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지급 형태의 개편이 검토되며, 부부 감액제도도 완화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보험료 대납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을 막는다. 퇴직연금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지출과 함께 제도별 세부 시행 방안을 포함했다.

◆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내년 지급액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0~30%에는 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의 35만원에서 3만원 늘린 38만원, 하위 30~45%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45~70% 구간에는 지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지급액 일부를 삭감하는 ‘부부 감액’ 제도의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각각 20% 감액했는데, 앞으로는 소득하위 0~45%에 해당하는 가구는 감액 비율이 10%로 줄어든다.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하면 올해 부부합산 58만원을 지급받던 저소득층 가구는 내년엔 64만6000원(30~45%)이나 68만4000원(0~30%)을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지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지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방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국민연금과 다층체계로 고민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첫 보험료 대납’

국민연금은 사회초년생의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첫 보험료 대납’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1개월분의 보험료를 정부가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이 발생하면 이후 ‘추후납입’ 제도를 활용해 10년까지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최초 가입 시기를 앞당겨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18~60세 미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 의무대상 예외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해 미취업 청년의 가입률은 높지 않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입 제도의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라도 국민연금 납입 이력이 1개월 이상이라면 추후납입 제도를 통해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총 1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만큼 추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국내 비거주자의 추납 제도 악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도 늘린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증 장애)에만 지급됐던 장애인 연금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늘린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4%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

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오는 15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계좌 적립액을 직접 운용해야 했던 기존 퇴직연금 제도(DC형·DB형·개인형IRP)와 달리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액을 하나의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한다. 대표적인 ‘기금형 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다. 기금형은 전문가가 상품을 대신 운용하는 만큼 투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손실위험 대비 기대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말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유럽 ‘中 배터리 의존 줄이기’ 속도… 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EU 조달·보조금 역내산 요건 추진
배터리 3사 유럽 생산기반 강점
국산 소재 연계 공급망 구축 관건

유럽이 빠르게 높아지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먼저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확대와 역내 생산 기준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유럽 현지 생산기반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과 국내 소재기업을 연계해 셀과 소재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공조달과 보조

금에 역내산 요건을 도입하고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는 현지 고용과 기술이전, 역내 조달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를 강화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역내 생산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빠른 영향력 확대가 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3년 60.4%에서 지난해 약 30%로 낮아진 반면 중국 기업은 지난해 약 60%를 차지했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거론된다. 유럽외교협회(ECFR)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을 중국 선도 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글로벌 셀 제조사로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에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설비를 활용한 공급 확대 여건도 갖추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법안도 국내 기업의 유럽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소재를 일정 조건에 따라 역내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배터리 기

업의 유럽 공공조달과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와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 제품 출하를 늘리며 유럽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SK온은 헝가리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고객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삼성SDI는 유럽에서 대중형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확대와 LFP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원료·소재 공급망은 국내 기업이 유럽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도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소재기업을 활용해 원료와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대체 공급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소재를 한꺼번에 제외하면 배터리 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산 소재와 부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공급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 폴란드 방산협력 확대… 천무 이어 K9 현지화

천무 유도탄 40억달러 공급계약
현지 생산공장 부지 확보도 완료
K9 후속계약·K9A2 협력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의 방산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천무 유도탄 현지생산 사업이 40억달러 규모 공급계약과 공장 구축으로 진전된 가운데 K9 후속사업 협의도 이어지면서 오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추가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8~11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한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대공무기체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시장을 겨냥한 다목적 무인차량 등 무인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해 MSPO에서는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과 한화WB어드밴스드시스템즈 설립 협정을 맺고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용 유도탄 현지생산과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에 나섰다.

협력은 이후 계약과 생산시설 구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국방부는 합작법인이 주도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약 40억달러(140억즈위티) 규모의 CGR-080 유도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호마르-K 사업의 세 번째 실행계약으로, 현지 생산 물량은

오는 2030년부터 공급된다. 지난 3월에는 무기공장 건설 허가가 발급됐고 6월에는 116.3578ha 규모의 공장 부지도 확보했다.

K9에서도 도입계약을 넘어 산업협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K9 672문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MSPO에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9 생산·정비·개발과 폴란드형 K9 자주포(K9PL) 개발, 차세대 야전포 체계 공동 연구개발 등이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이 같은 협력은 지난 2023년 12월 약 3조4500억원(26억달러) 규모의 K9 2차 실행계약에도 반영됐다. K9 152문 공급과 함께 유지보수 부품의 폴란드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현지 방산업계의 정비·개

량을 위한 기술지원이 포함됐다.

현재는 3차 실행계약 등 K9 후속사업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보이치에흐 발춘 폴란드 국유자산부 장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차세대 K9 자주포(K9A2)의 폴란드 현지생산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9A2는 현재 한국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으로, 현지생산이 구체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K9 3차 실행계약은 계속 협의의 중이지만 당장 계약 체결 등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K9A2 도입을 원하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금리 재산정’ 주택매입 차주, 원리금 급상승 물가 상승, 씹씹이 둔화… 내수 위축 ‘도미노’

고물가·고금리의 귀환

③ 물가·이자부담 상승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뛰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 커졌다.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가계는 생활비와 이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빚을 안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8일 기준 연 4.68~7.15%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넘어선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주담대 금리 7% 돌파…이자 부담 ‘경중’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6월 말 4.241%에서 7월 말 4.343%, 8월 말 4.382%로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변동형 주담대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4월 이후 6달 연속 상승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8일 공시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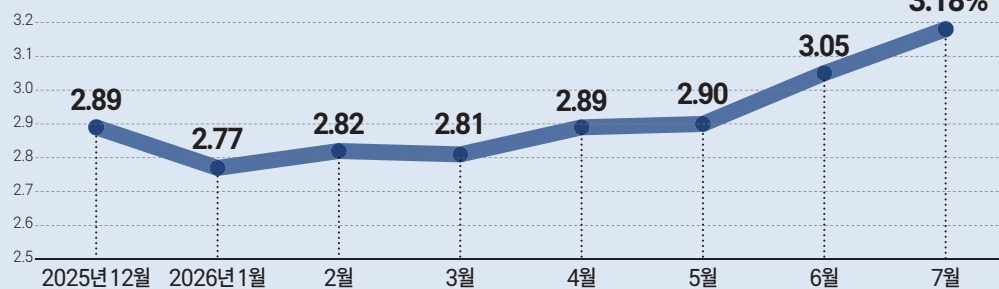
금리 상승의 직격탄은 저금리 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당시 연 2~3%대 금리로 5년 고정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잇따라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고 있어서다. 재산정 이후 적용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도 수십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4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 연 3%에서는 월 상환액이 약 168만원이다. 금리가 연 5%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215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46만원가량, 연간으로는 550만원 안팎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책금융도 금리 상승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7월 보증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p) 인상한 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9월 ‘아낌e-보증자리론’ 금리는 연 4.90~5.20%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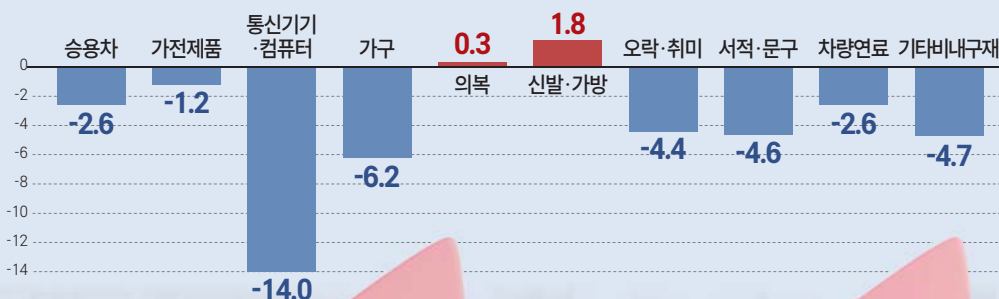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추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은행연합회, 국가데이터처
사진/뉴시스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7% 넘어서
기준금리 ↑ 대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4억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시
금리 3% 월 상환 168만→5% 215만원

필수생활비·원리금 상환액 동시 상승시
외식·여행·의류 등 선택적 소비부터 줄여

◆ 생활비에 이자까지…소비 여력 ‘뚝’

문제는 고금리의 충격이 결국 가계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늘면 가계가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식비와 주거비 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액이 동시에 증가하면 외식이나 여행, 의류·가전 구매 등 선택적 소비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계의 부담을 넘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782조1192억원으로 전달대비 3조1401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소비 지표에서도 가계의 씹씹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4로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특히 통신기기·컴퓨터 판매는 14.0%, 가구는 6.2% 감소했다. 선택적 소비 성격이 강한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면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활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리금 상환 비중이 높은 차주들은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유리 기자 yult15@metroseoul.co.kr



metro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지역 곳곳에 행복을 더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하는
KB작은도서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과 우수기업을 한 곳에 모아
채용 상담부터 면접까지 연결하는
KB굿잡 취업박람회

사장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상권분석부터 경영지원까지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희망의 약속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서비스)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3904-1호(2026.08.18.), 유효기간 2026.08.18.~2027.08.17.까지

 KB 국민은행

민주 계파 갈등에 조국發 악재까지… 김민석號 통합 ‘삐걱’

강민구 윤리감찰 부단장 하루만에 해임
명청대전, 전대·대표 취임후에도 지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재판 발언’ 충돌

취임 보름을 넘긴 김민석 당 대표가 계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민구 윤리감찰 부단장을 임명 하루만에 해임한 가운데, 민주당이 연대를 위한 대화를 준비 중이던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재개될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해 친명(친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 안팎으로 시끄러운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1일) 한 일간지에 강민구 당 윤리감찰단 부단장과 박선원 최고위원이 나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임명 하루 만에 강 부단장을 해임했다. 8·17 전당대회 이후 당 내 계파 갈등이 해당 대화 내용 공개로 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강 부단장을 임명 하루만에 해임하며 선제적으로 의혹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강민구 부단장은 친명(친이재명)계에 가까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에게)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기표 의원한테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도 보였다.

김기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기구로,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은 극심했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사이 싸움)’을 벌였고, 여진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에게 경선을 통한 청년 최고위원 선

출을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지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선 김 대표가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당의 전략과 관련 두 사람이 서로 절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해 친청계의 반발을 불렀다.

정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김 대표의 행동이 “마이크 독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표가 추진하는 유튜브 방송 ‘민주당TV’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김여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해 만들었다

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통합보다는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친청계 또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합당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민주당의 커다란 과제로 다가왔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일부를 두곤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제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12·3(내란)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의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지혜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풀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상 조작기소와 관련한 여러 사실적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조작기소에 대한 정치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검찰의 인권에 대한 무자비한 침탈 등을 바로잡고 제대로 설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 정신에 응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국 원장께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들이며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원장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뻔했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추석 전 청문회 정국… 김승원·용혜인 ‘최대 격전지’

이소영 15일, 홍지선 16일 확정
오는 14~18일 집중 개최될 전망
野, 공소취소·의원직 유지 집중 공세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야당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맹공을 예고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장관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이형일 ▲법무부 김승원 ▲국방부 강신철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국토교통부 홍지선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장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5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로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이형일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조율 중이며, 강신철 후보자의 청문회도 14~18일 중 하루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르면 18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여야 간 충돌이 강하게 벌어질 장은 법무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각각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비례대표 2번 한 골수저’ 등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점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철회’ 의혹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공세를 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후

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 때문에 ‘사람잡는 약’이 나올 뻔했다.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때문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이력은 아원의 주요한 공세지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지명됐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1일)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했다.

용혜인 후보자도 공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2번 역임한 데다, 장관직에 지명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는 관례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용혜인을 ‘형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김소희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른 다며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청년 주거 희망 되찾겠다”

토론회 열고 李 정부 주거정책 비판

국민의힘은 2일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다.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자옥”이라며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다. 그 힘

들었던 문제인 정권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며 “이제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다. 주택 구입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며 “(청년들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평소 공공임대 찬양론자인 김용범 전 실장이 어제 그만뒀다. 국회에서 딸에게 공공임대에서 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김 전 실장이) ‘내 딸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런 소리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며 “그 딸은 아빠 찬스로 방배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정권의 진짜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빌라나 공공 임대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

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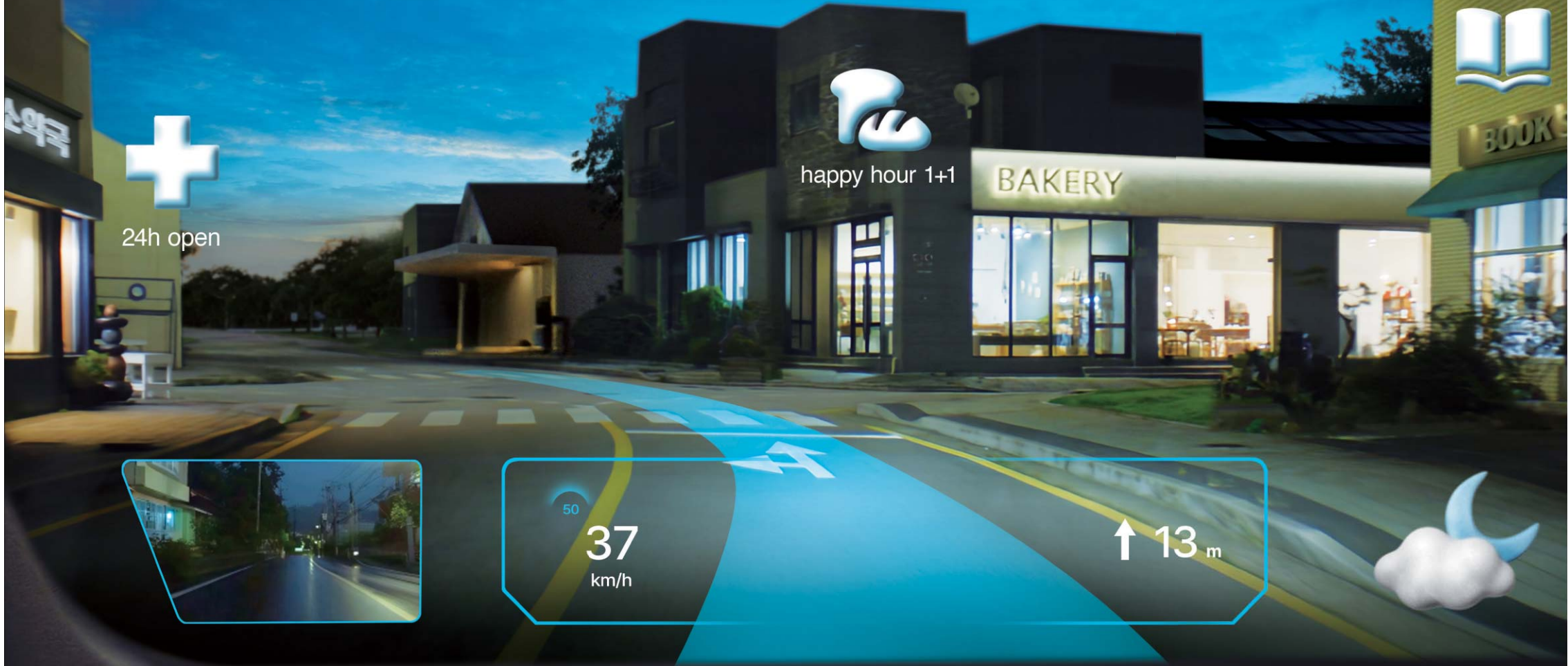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의 미래가 정말 페버스 주택, 그리고 욕조가 있는 고시원인가”라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 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 나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되찾아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첫 내 집 마련 금융 세금 부담을 낮춰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HYUNDAI
MOBIS

삼전, 금리 1.5% 대출 푼다… 동탄·기흥 등 주택시장 ‘들썩’

무주택 임직원 대상 주거안정 지원
매매 최대 5억, 임차자금 3억 대출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48%
5억 빌리면 연 1490만원 아끼는셈
“8억~9억 매물 위주 거래 분위기”

반도체 훈풍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동탄·기흥 등 경기 남부 주택시장이 다
시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일
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로 최
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른
바 ‘반도체 벨트’ 매수세를 재점화할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제도(사내 주택자금 대출)를 시행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오
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매매
자금은 최대 5억원, 임차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연 1.5%로 지원한다. 매매 대상은



삼성전자가 9월부터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화성시 동탄역 일대. /성채리 기자

25억원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이자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

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48%였다. 이와 비교하면 5억원을 빌
릴 때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149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부담으로 주택 구입을 미뤘던

임직원의 매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셔틀버
스로 접근하기 쉬운 화성 동탄과 수원 영
통, 용인 기흥·수지 등의 중소형 아파트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가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8억~9억원대 주택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탄역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
자는 “역세권 아파트는 가격대가 높아 아
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며 “같은 동탄에
서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8억~9억원
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
다”라고 말했다. 동탄 내 외곽 지역으로
쫓히는 목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는 “9월이 되면 사내대출을 이용해 집을
살 계획이라는 임직원들의 문의와 방문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 아파트값도 상
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

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의 상
승률은 전주 0.12%에서 0.54%로 확대됐
다. 수원 영통구는 0.30%에서 0.75%, 용
인 수지구는 0.30%에서 0.66%, 기흥구는
0.33%에서 0.63%로 상승폭이 커졌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사내 주택대출 문
턱을 낮췄다. 연 1.5%, 최대 2억원인 사내
주택대출 대상을 다자녀 직원에서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대
기업의 주거 지원이 임직원의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저금리 사내대
출이 주택 구매력과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 임직원은 시
중보다 낮은 금리와 DSR 규제 예외로 매
수 여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추석 기차표 10% 할인… 비용부담 덜어요”

카드사별 교통비 할인 꿀팁

신한카드, 뽁·에코플랜 KTX 10% ↓
삼성카드, 한화이글스 등 5% 할인
KB국민, 2만원 결제시 5000원 혜택

추석 귀성길 열차 예매를 앞두고 KTX
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 시 할인 혜택
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명절을 맞아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
큼 보유한 카드의 할인 조건과 한도를 미
리 살펴보면 귀성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3~4일은
교통약자 사전예매가, 7~11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예매가 진행된
다.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항하
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추석 귀성길에 열차 관련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적립보다는 할인에 집중
하는 것이 좋다. 추석 KTX 승차권은 K

TX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
문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뽁(B.Big)’ 카드
가 주목할 만 하다. 신한카드 뽁 카드는 K
TX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
드 에코(ECO) 플랜(Plan)’ 카드는 KTX
·SRT 이용 고객 모두에게 10% 할인 혜택
을 지급한다.

삼성카드 고객은 ‘한화이글스 삼성카
드’, ‘삼성라이온즈카드’ 등을 통해 KT
X, SRT 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카드 taptap I’ 여가 패키지를 선택
하면 KTX, SRT 포함 건별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트래블러스 체크
카드’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고객에게 K
TX 2만원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제공한
다. 고속시외버스 업종 2000원 할인 혜택
도 누릴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라면 ‘국민연금

증 우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국민연금증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자 본인 한정 철도 요금 30~50%를
할인해 준다. KTX,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는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현장 열차 승차권 구매 시 신분증 제시
는 필수다.

현대카드 ‘현대카드ZERO 에디션3’도
KTX 할인 카드로 활용하기 좋다. KTX
승차권 예매 시 기본 0.8% 청구 할인 혜택
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X’ 카드는 1% 청
구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한편, 예매 후 승차권 결제는 이달 12일
0시부터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
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
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 결제되지 않은 표
는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표는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서대로 넘어간다.

2026년 추석 KTX 기차표 1회당 6매 이
내,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수

1억5925억 규모 ‘책임경영’ 실천
16개 전 자회사 임원 등 56명 참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및 우리금융
그룹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책
임경영 실천에 나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24일 임종룡 회
장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으로 1억5925만원 규모다. 이번 자사
주 매입은 약 4개월간의 동양생명·완전자
회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양생명·ABL
생명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시점에 진행
됐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매입이 임종룡 회
장의 ‘은행·비은행 성장모멘텀 확보’에 기
반한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전달
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한다. 이번 자사
주 매입에는 임 회장 뿐 아니라 16개 전
(全) 자회사 대표, 지주사·은행 및 주요 자
회사 임원 등 그룹 경영진 가운데 총 56명
이 참여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했다.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함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책임경영 실천 및 주가부양에 대
한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라며 “성장 모멘
텀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의 약속인 밸류
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자평가를 해소하
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외국인 국내 카드결제 49억 달러 ‘사상 최대’

한은, 2분기 카드 해외 사용실적
거주자 해외카드 사용액 4.2% 감소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쓴
카드 금액이 2분기 48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거주
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4.2% 줄면서
양측의 격차가 10억달러 아래로 좁혀
졌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48억6200
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6.1% 급증했다. 종
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 37억9300만
달러보다도 28.2% 많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
2502만장으로 전분기보다 34.3% 늘었다.
카드 한 장당 사용액도 192달러에서 194

달러로 증가했다.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58억
48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2% 감소했
다. 전년 동기보다는 5.9% 늘었지만 비거
주자의 국내 사용액과의 격차는 9억8600
만달러로 축소됐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3억
5000만달러에서 14억1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내국인 출국자 수가
833만1000명에서 663만1000명으로
20.4% 줄면서 여행 관련 카드 지출이 위
축됐다.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수는 1815만
9000장으로 3.3% 줄었고, 카드 한 장당 사
용액도 322달러로 0.9% 감소했다. 카드 종
류별 사용액은 신용카드가 40억7500만달러
로 0.6%, 체크카드가 17억7300만달러로
11.5% 각각 줄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KB국민은행 中企·소상공인 지원 추석자금 15조 공급

KB국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
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
원한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총 15조
2000억원 규모(신규 6조 2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업체당 소요 자금 범
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기
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
기 위해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 상환조건
없이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아울
러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 시 최대 1.5%
포인트(p)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상권 활성화’ 이벤트 마련

국토부 ‘K-패스’ 최대 2만원 캐시백
햇살론·그린카드 캐시백 혜택 다채

KB국민카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금
융 접근성 제고, 친환경 소비 확산 등 사
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이달까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와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카드 신용·체크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착한가격업소가맹
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추
첨을 통해 K-패스 환급액의 절반을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해 준다.

내달까지는 햇살론카드 이용 이벤트
도 진행한다. 햇살론카드, 소상공인 특례
햇살론 신용카드로 4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캐

시백을 제공한다. 취약 차주에게 실질적
인 카드 이용 혜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
을 높이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천한다
는 취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친환경 소비문
화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 이벤트도 실
시한다. 그린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자
연휴양림·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을 이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지
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일상적
인 카드 이용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포용
금융, 친환경 소비 등 사회적 가치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사업과 연계해 고
객 혜택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동전 떨어진 줄 알고 돌아봤다”… LG 홈오디오의 ‘공간감’

체험기

LG 프리미어 스위트7

6개 스피커로 방향·거리감 또렷 우주영화 적막·묵직한 저음 구현 배치 바뀌도 앱으로 음향 재조정 필요한 스피커만 골라 사용 가능 전원선 6개 연결은 설치 때 부담

넷플릭스시리즈 ‘동궁’을 보던 중구천(남주혁)이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무심코 옆을 돌아봤다. 화면 속 효과음이 아니라 집 안에서 동전이 떨어진 줄 알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홈오디오시스템 ‘LG 프리미어 스위트7’을 체험하면서 입체 음향을 가장 실감한 순간이었다.

프리미어 스위트7은 TV 앞에 놓는 사운드바(H7)와 저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W7), 거실 곳곳에 배치하는 무선 스피커(M7) 4대로 구성된다. 모두 6개 기기를 설치한 뒤 영화와 드라마 등을 재생해봤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만큼 웅장



거실에 설치한 LG 프리미어 스위트7으로 우주 영상을 재생하는 모습. 사운드바와 서브우퍼, 무선 스피커 4대를 곳곳에 배치해 소리의 방향과 공간감을 체험했다. /구남영 기자

한 소리를 예상했지만 차이는 음량보다 공간감과 방향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우주의 적막감까지 살렸다… 소리 방향·거리감 ‘뚜렷’

특히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는 공간감이 두드러졌다. 우주선이 움직이면 소리도 화면을 따라 앞뒤와 좌우로 이동했고, 진공 상태의 우주를 표현한 장

면에서는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며 특유의 적막감이 느껴졌다. 다시 엔진이 가동되자 묵직한 저음이 바닥과 주변을 채웠다.

영화처럼 효과음이 많은 콘텐츠뿐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드라마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작은 효과음까지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구분됐고, ‘동궁’의 동전소리를 집 안에서 난 소리로 착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같은 입체 음향에는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캐넥트’가 활용된다. 여러 개의 스피커를 정해진 자리에 맞춰 놓지 않아도 각각의 위치를 파악해 배치에 맞는 소리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스피커 옮겨도 다시 맞춘다… 앱 클릭 한번에 조정

스피커 배치도 바뀌었다. 무선 스피커의 위치를 옮겨자 같은 영상을 틀어도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균형이 달라졌다. 이후 LG 씽큐(ThinQ) 앱에서 다시 설정하자 바뀐 공간에 맞춰 음향도 조정됐다.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스피커를 옮겨도 음향을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스피커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편리했다. 씽큐 앱에서 연결된 스피커 가운데 일부만 켜거나 끌 수 있어 항상 6개 기기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콘텐츠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스피커만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청취 위치에 맞춰 소리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사운드 팔로우’는 스마트폰 위치를 파악해 사용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각 스피커의 음량과 균형을 조절한

다. 무선 스피커는 각각 별도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선’이라고 해서 전원선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운드바와 서브우퍼, 무선 스피커 4대 등 6개 기기를 각각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스피커끼리 음향 신호를 연결하는 선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파 뒤나 거실 양쪽에 배치하려면 주변 콘센트 위치까지 고려해야 했다. 스탠드 내부로 전원선을 정리할 수 있어 노출되는 선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콘센트가 없다면 멀티탭이나 연장선이 필요해 배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프리미어 스위트7을 체험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소리보다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우주영화에서는 적막감이 살아났고 드라마에서는 작은 효과음의 위치까지 느껴졌다. 6개 기기의 전원 연결은 번거롭지만 필요한 스피커를 골라 쓰고 배치를 바꾼 뒤 앱에서 다시 음향을 맞출 수 있어 거실 구조에 맞춰 흡사터터를 구성하기에는 편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장인화 “핵심광물, 한·호주 협력 새 성장축”

〈포스코그룹 회장〉

호주 자원·韓 제련기술 결합 제안
철강·리튬·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
방산·우주·R&D 파트너십 확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호주와의 자원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미래산업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2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합동회의에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핵심 광물은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 제련·가공 기술을 결합한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다. 천연가스 공급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우주·R&D



2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장인화 한·호 경제협력위(KABC) 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왼쪽)과 마틴 퍼거슨(Martin Ferguson) 호·한 경제협력위(AKBC)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대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이차전지소재-핵심광물 협력 ▲혁신·연구개발(R&D) ▲에너지 전환·탈탄소화 등 3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스코그룹은 그룹 첫 해외자원 전문 연구소인 호주핵심자원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며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인더내셔널은 에너지 협력 역시 전통 자원 확보를 넘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회의 전날인 1일 팀 에어즈 호주 산업혁신장관과 돈 패럴 통상관장장관을 잇달아 만나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철강·리튬·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필리파미네랄즈의 캐슬린 콘론 의장 일행과도 만나 리튬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보는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트리플 코어’ 전략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자원인 철강과 전력자원인 리튬, 에너지자원을 3대 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호주는 포스코그룹 원료 조달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다.

포스코그룹은 1971년 철광석 장기 구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억t 이상의 호주 산 원료를 도입했다. /유혜은 기자 chae@

삼성전자, ‘AI 리빙’으로 유럽 공략

IFA 2026서 ‘AI 일상 동반자’ 구현
냉장고·TV·가전 맞춤형 AI 경험 확대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여가와 집안 일, 건강관리 등 일상 전반에 접목한 ‘AI 리빙’을 선보인다. 냉장고가 식재료에 맞춰 요리를 제안하고 TV가 시청자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춰 AI가 작동하는 일상을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 훔볼트 카레에서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를 주제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엔터테인먼트와 홈, 케어 등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삼성전자가 지난 1월 CES 2026에서 제시한 ‘AI 일상 동반자’ 전략을 유럽 시장에서 구체화한 자리다. TV와 가전, 모바일 등 개별 제품의 AI 기능을

넘어 이용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강조했다.

특히 홈 공간에서는 유럽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에너지 절감과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요리를 제안하며 화면을 통해 연결된 가전의 전력 사용량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한다. 비스포크 AI 세탁기는 세탁물에 맞춰 모터 작동을 조절해 유럽 에너지 효율 A등급 기준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70% 줄였다.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식기의 오염도를 감지해 물과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며 A등급보다 에너지를 20% 절감한다. 별도 후드 없이 냄새와 연기를 흡입하는 후드일체형 인덕션도 함께 전시한다.

/구남영 기자

HS효성첨단소재, ‘탄섬’ 앞세워 글로벌 공략

中 복합재료 전시회에서 탄소섬유 공개
모빌리티·스포츠 적용 제품 선보

HS효성첨단소재가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TANSOME)’과 산업별 적용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나선다.

HS효성첨단소재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장(NECC)에서 열리는 ‘2026 중국 국제복합재료공업기술 전시회(China Composite Expo 2026)’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CCE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등 고성능 강화섬유를 비롯해 수지와 복합재료,

관련 장비를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 전시회다. 지난해에는 세계 17개국에서 85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2만7000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3년부터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의 실물 샘플과 산업별 적용 제품을 선보인다. 자동차 휠과 보닛, 브레이크 디스크 등 모빌리티 부품을 비롯해 하키스틱과 피클볼 라켓, 서핑보드, 헬멧 등 스포츠용품도 전시한다. 수소·산소·고압용기와 드론, 전선심재에 적용된 제품도 공개한다. /원관희 기자 wkh@

국회수소경제포럼

현대차·기아 수소기술 점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수소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일 남양연구소에서 수소 산업의 첨단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배 공동대표위원을 비롯해 조배숙·안호영·김주영·박형수·김소희 의원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서흥원 한국수소연료전지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호텔TV 넘어 객실 인프라 사업 확대

LG전자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객실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호텔TV 공급을 넘어 객실 내 기기와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메리어트 본사에서 객실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과도영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과 드류 핀토 메리어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매출책임자(CRO)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호텔TV를 객실 내 콘텐츠와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메

리어트가 고객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을 설계하면 LG전자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과 객실 기기 통합 관리, 운영 기술 지원 등을 맡는다.

신규 플랫폼은 미국과 캐나다의 메리어트 계열 호텔 40곳에 우선 적용한 뒤 메리어트가 보유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호텔마다 별도로 운영하던 객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호텔별로 서버와 셋톱박스 등을 구축해야 했지만 새 플랫폼을 활용하면 객실에 설치된 기기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도 한꺼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소상공인 생태계 강화

중기부,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등 사회안전망 넓힌다

2027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 200만명 건강검진 지원
육아수당 도입... 3개월간 150만원

정부가내년에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해 창업 5년 미만 청년 약 4만8000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일시 휴
업할 경우 대체인건비를 준다.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지원
수당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간담회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은 크게 ▲청년

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
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3대 축으로 준비했다.

창업안심 정책보험의 경우 결혼, 출
산,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시 사무
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에 쓸
수 있도록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또는 재도전을
통한 창업시엔 별도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건강검진은 200만명을 대상
으로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육아지원 수당은 1인 자영
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안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
험료(최대 80%, 5년)를 내년에 약 5만
5000명에게 지원한다. 다만 계획안은 국
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바뀔 수 있다.

이병권 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
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
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들려준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
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
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
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
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소진공, 첫 명예이사 위촉... 정책-현장 연결

홍석천·류은혜·김은희 등 6명
기관경영·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인 홍석천씨 등 6
명을 위촉했다.

소진공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드림
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를 정책과 기관 경영에 폭넓게 반영하
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
기 위해 첫 명예이사를 위촉했다고 2
일 밝혔다.

명예이사 제도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

권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명예이사로 위촉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경영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위촉식에서 자영업 전문가
이자 이태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온 방송인 홍석천을 비롯해 류은혜 프
랑스 정부 공인 문화 해설사, 김현성 국
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김은
희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사,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
동대표,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을 명예이사로 위

촉했다.

명예이사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
획이다. 또 홍보·정책·대외협력·지역 상
권 등 소상공인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에
힘을 보탬 수 있는 각계 전문가를 명예
이사로 지속 위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과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
갈 계획이다.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은 "명예이사들



(왼쪽부터)방송인 홍석천,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이사,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신규철 교육본부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김현성 자문위원이 지난 1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진행한 소진공 명예이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소
상공인 정책에 연결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가치를 함께 발굴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美 엘우드 물류센터 본격 운영

韓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거점 육성

CJ대한통운이 한국해양진흥공사(KO
BC)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 물류
센터 운영을 본격 시작하며 북미 물류 사
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동부 시카고에 이어 중서부 엘우
드까지 전략 거점을 확충하면서 한국
기업의 북미 공급망을 지원하는 핵심
물류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해양진흥공사와 추진한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 물류센
터 구축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고 2일 밝혔다.

미국 중서부 물류 중심지인 시카고 인
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약 10만2775
㎡(3만1089평)로 축구장 약 14개에 달하
는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대규모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향후 고객과 물동량 증가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도 갖췄다.
대형 화물차가 동시에 물품을 입출고할
수 있는 130개의 도크를 확보해 입출고 집
중 시간대에도 대량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2m의 높은 유효충고를 활용해
수직 적재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엘우드센터를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 첨단산업의 북미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다. 엘우드센터는 대규모 보관공간과 미
국 전역을 연결하는 운송망, FTZ를 활용
한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원자
재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 물류 수요
에 대응하고 관련 고객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나단 송CJ대한통운 글로벌사업부문
대표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에 확보한 핵
심 물류거점을 기반으로 북미 사업 경쟁
력을 한층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
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군의 글로벌 성장
을 지원하는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거래플랫폼' 1023억 예산 확보

AI 기반 검색 매칭·기능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기술거래플
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더욱 고도
화하고 기업들의 기술사업과 지원을 강
화한다.

기보는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정과제
인 '기술거래플랫폼 연계·고도화'를 위한
예산 88억원과 '기술사업과 전용 보증'
93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023억원의 기술
거래·사업화 활성화 예산이 반영됐다고 2
일 밝혔다.

기보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재
원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
유한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부처

별 기술거래플랫폼 간 연계·고도화에 속
도를 낸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과정
에서 자금 부족과 시장진입 부담으로 발
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
업화 전용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
해 기술 탐색·매칭부터 계약, 사업화자금
지원까지 이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
신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
이다.

이번 스마트테크브릿지 연계·고도화는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플랫폼을 연결
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검색·매칭 기능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가온전선, AI DC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저마찰 케이블 등 제품군 확대

가온전선이 저마찰 케이블을 앞세워 인
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온전선은 배전용 저마찰 케이블의
적용 범위를 기존 반도체 공장에서 AI
데이터센터(AIDC)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저마찰 케이블은 외피 소재를 개선해 설

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기존 제품보
다 약 30% 줄인 제품이다.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45% 늘려 작업 인력
과 공사비를 20~30% 절감할 수 있다.

AIDC는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버스덕트를 주로 사용하지만 설계와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에는 배전 케이블
도 함께 설치한다. 저마찰 케이블은 버스
덕트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구
간에 적용된다.

가온전선은 저마찰 케이블까지 제품군
에 추가해 데이터센터 내부 배전부터 외
부 전력망 연결까지 AIDC 내·외부를 아
우르는 전력 인프라 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AI 데이터센터
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등 대규
모 산업시설에서 시공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배관일체형(ACF) 케이
블과 저마찰 케이블, 케이블버스 등 차별
화된 특수 배전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 1주년 기념 행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자동차 동호
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대차는 오는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리뉴얼 1주년 기념 행사 '현대
모터스튜디오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
다고 2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지난해 리뉴
얼을 거쳐 차량 전시 중심의 공간에서 다
양한 자동차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리뉴얼
이후 1년 동안 11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클래식카와 심레이싱, 다이캐스트, 미니
카, 프라모델 등을 주제로 20회가 넘는 커
뮤니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1년간 현대 모터스
튜디오 서울과 협업한 7개 동호회가 참여
한다. 각 동호회의 특성에 맞춰 건물 외부
와 1층부터 옥상까지 공간을 꾸미고 회원
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철하 제작 CGV 픽처스 올(O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올(O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올 여름 시원하게 OK?

오케이 마담2



AI 시대 인프라 전쟁... 통신3사 “네트워크까지 지원해야”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간담회
“AIDC 특별법, 투자환경 저해 우려”
정부 정책·세제 지원 확대 요구
11월까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통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 재원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려면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통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도 제기됐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AI 인프라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통신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낮춰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정한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간담회에서 통신3사는 정부에 투자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를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간담회에서 산·관·학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활성화하고, AI 인프라로 인정되는 영역을 해저케이블, 저궤도 위성망 등으로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달라고 강조했다.

KT 서은일 통신정책담당 상무는 특히 AI 인프라를 육·해·공 네트워크로 확대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IDC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지상망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망까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해저케이블은 투자 회수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어민 보상,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구축 과정에도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궤도 위성 역시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해 공공 수요를 초기 투자 촉매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신상민 커뮤니케이션센터 정책개발실장은 네트워크를 단순한 통신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GPU와 AIDC를 아무리 늘려도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인프라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5G SA와 6G 등 차세대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3G 등 레거시망 정리와 구리선의 광케이블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이아영 대외전략담당은 AI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를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AIDC 상당수가 여러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코로케이션 방식인 만큼 시설을 누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I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인프라라면 사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의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에는 거리를 뒀다. 홍사

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과거 LTE 투자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사례와 최근 일회성 비용 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통신사가 투자할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단순히 통신사의 비용을 낮춰 투자 여력을 만들어주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와 이용자 혜택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네트워크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관심을 보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AIDC뿐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AI 인프라로 볼 것인지, 어떤 투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진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진흥과장은 세제 혜택이 공공 자원과 직결되는 만큼, 실제 AI 개발에 활용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게임, TGS서 서브컬처 신작 ‘격돌’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
이용자 반응 확인하고 팬 선점 전략

국내 게임사들이 일본에서 서브컬처 신작 경쟁에 나선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이 ‘도쿄게임쇼(TGS) 2026’에 서브컬처 신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본 이용자를 겨냥한 팬덤 선점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TGS2026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TGS는 처음으로 행사 기간을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17~18일은 비즈니스 데이, 19~21일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서브컬처 신작을 잇달아 TGS 무대에 올리면서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대표적인 서브컬처 시장인 만큼 신작을 출시하기 전 현지 이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초기 팬덤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엔씨가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인 도쿄게임쇼에 출품한다. /엔씨

넥슨은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파레이돌리아’를 TGS에서 처음으로 시연한다. 기존 ‘프로젝트 RX’로 알려졌던 작품으로 ‘블루 아카이브’를 개발한 넥슨 게임즈 IO본부 산하 RX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다. 파레이돌리아는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3차원 그래픽을 기반으로 캐릭터와의 일상과 교감을 강조한 신작이다. 넥슨은 TGS 현장에 게임 속 주요 공간인 ‘타소가리관’을 구현한 부스를 마련하고 게임 시연과 코스프레,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현지 이용자와 접점을 확대한다.

엔씨소프트도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앞세운다. 국내 게임 개발사 디나미스웍이 개발 중인 작품으로 엔

씨는 TGS 현장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게임을 알릴 계획이다. 엔씨는 TGS에 앞서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대형 동인 행사 ‘모믹마켓108’에도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출품했다. 당시 캐릭터와 세계관을 담은 티저 아트북 등을 선보이며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알리기에 나섰다.

넷마블은 자체 IP 기반 신작 ‘펄 인 블루’를 출품한다. 캐릭터 수집과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역할수행게임(RPG)으로 2차원 애니메이션 감성을 살린 그래픽과 연출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넷마블은 TGS에서 펄 인 블루의 현장 시연과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일본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인기 IP를 기반으로 한 ‘상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과 글로벌 인기 IP를 활용한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등도 출품해 신작 알리기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도 TGS에 참가해 서브컬처 시장 공략을 이어간다. 출판작 가운데 컨트롤나인이 개발 중인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와 에릭 오 작가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6’ 현장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프리즈 서울’서 고객 경험 확장

자사 고객 전용 공간 마련
이달 문화복합공간 공개

LG유플러스가 문화 예술 콘텐츠로 고객 경험 확장에 나선다. 글로벌 예술 박람회에 자사 고객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이달 중 새롭게 개편한 문화복합공간을 공개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5일까지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6’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글로벌 예술 박람회 마련한 고객 전용 라운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문화예술을 브랜드 경험으로 확장하며 고객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행보다.

이날 오픈팅 세레모니에서 홍 대표는 “AI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창의성, 상상력과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 중심 AI’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한 프리즈 역시 신진 작가와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에서 출발했기에 프리즈를 시작으로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파트너십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프리즈’ 행사는 영국 런던에서 2003년 시작한 예술 박람회다. 전 세계 주요 갤러리, 작가, 수집가가 참여해 현대미술 작품

을 전시, 거래한다. 현재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했으며 서울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전 세계 30개국 125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마티리얼 프랙티스’ 섹션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해당 섹션은 재료 고유의 물성과 장인정신에 주목하며 공예와 동시대 예술, 디자인의 접점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이번 후원을 통해 공예 예술 지원을 통해 AI 시대에도 창작과 감상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의 성장과 연결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기간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유플러스 라운지’도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미디어아티스트 에릭 오와 협력해 순환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대표작 ‘오페라’를 비롯해 서울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영상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재개관 예정인 ‘유플러스 일상비밀상의틈’의 방향성도 공개한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사우디 DX 사업 전방위 확대

부동산·지방행정·생활 공략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전환(DX) 사업이 디지털트윈을 넘어 부동산·지방행정과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사우디NHC이노베이션의 합작법인(JV)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전시회 ‘LEAP 2026’에서 사우디 부동산 등기관 RER과 부동산·지방행정 분야 DX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RER은 사우디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지도, 지리공간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지방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관련 규제 체계에 맞춘 기술 연동과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최근 사우디 정부의 자치체용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 승인된 이후 이뤄졌다.

네이버는 2023년 사우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현지 도시 공간을 디지털 환경에 구현해왔다.

민간 생활 서비스와의 연결도 확대한다.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사우디 음식점 검색·예약 플랫폼 ‘WDDK’와도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예약부터 결제·티케팅, 각종 혜택을 하나의 디지털 경험으로 연결하기 위해 플랫폼 연동과 데이터 교환을 추진한다. 공동 레스토랑 예약 솔루션과 디지털 마케팅, 통합형 경험 패키지 등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 고금리에 20대 그룹 순발행 단 4곳

20대 그룹 대부분 발행보다 상환 SK 순상환액 4조4508억 ‘최대’ BBB급 회사채 잇단 수요예측 부진 기업 자금조달 은행 대출로 이동 시설자금 발행 급감 투자위축 우려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회사채 발행 업무를 하는 A 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재무팀 담당자를 만난 후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왔기에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행을 상의하러 갔지만 기업 측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오른 금리 때문에 발행을 미뤄야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전에는 1~2%의 금리 정도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요즘 자금 조달이 막혀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자금줄인 회사채 시장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 전쟁, 긴축의 공포가 확산하면서다. 그 영향으로 커진 시장의 변동성도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때문에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은 더 비싼 값에 돈을 빌려야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대 대기업집단(금융사, 영풍 제외) 중 올해 회사채를 순발행한 곳은 삼성(4900억원), 한화(1180억원), 한진(2885억원), CJ(2972억원) 단 4곳이다. 20대 기업집단 중 순상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에 따라 회사채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

액이 가장 큰 곳은 SK다. SK의 순상환액은 4조4508억원에 달했다. 이어 롯데(-1조3926억원), LG(-1조3711억원), HD현대(-1조1080억원) 순이었다.

◆회사채 흥행 저조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다 보니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 등급이 싱글 A급으로 더 낮은 기업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이랜드월드(BBB0)는 이날 1년 단일물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회사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기관들은 모집액 대비 20억원 미달한 180억원 규모의 주문을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진(BBB+) 역시 총 400억원을 모집하는데 1년물 모집에서 10억원이 미달했다.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롯데건설(A)은 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510억원의 수요를 모집했다. 발행 금리는 1년물이 개별 민평 수익률보다 3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고, 1.5년 물은 민평금리와 같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달 신용 등급 BBB- 기업의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382%로 연고점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두산과 두산퓨얼셀, HL D&I 한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시장을 찾지 않았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진칼도 각각 세 차례 수요예측에 나

섰으나 올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024년과 지난해 연이어 발행했던 CJ CGV도 올해 공모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비싼 회사채 대신 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자금 조달 수단은 시중은행 차입(43.6%)이었고, 회사채 발행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투자 위축 우려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금리 인상(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채권값 하락과 글로벌 각국의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상반기 시설자금 목적의 회사채 발행액은 92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시설자금 목적 발행액은 2021년만 해도 5조4788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소 올 연말까지, 길게는 1년 반 정도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경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1년 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어 SK(8조8688억원), 롯데(5조8510억원), 삼성(5조

1000억원), LG(3조8650억원) 순으로 만기 도래분이 많다.

각국의 국제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제금리는 전장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88%를 나타냈다. 2025년 1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30년 만기 국제금리는 장중 5.919%까지 오르며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금리는 5.224%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독일 10년 만기 국제금리도 장중 3.339%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연말까지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위축된 채권 투자 심리 역시 연말까지는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 국제금리가 치솟고 있어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사이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AIDC 수주 기대에 건설주 질주

상반기 건설수주 116조 3년 만에 최대 반도체 공장·AIDC 발주 본격화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도체 공장 and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비주력 사업에서 새로운 수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가 건설주 전반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3~31일) KRX 건설지수는 22.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5.29%), 헬스케어(11.81%), 철강(18.75%) 등 주요 업종 지수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다.

개별 종목의 상승폭은 더 컸다. GS건설은 2만4250원에서 3만6300원으로 49.69% 올랐고, 대우건설은 1만3300원에

서 1만8190원으로 36.77% 상승했다. 현대건설도 9만5600원에서 12만3300원으로 28.98% 뛰었다. 반면 DL이앤씨(17.65%), 삼성물산(14.44%), 삼성E&A(6.08%)는 업종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배경에는 건설수주 증가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액은 1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늘었다. 2022년 상반기 129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표적인 수주처는 반도체 공장 and 데이터센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각각 약 2100조원,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평택·용인 일대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SK·GS·네이버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국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총 18.47기와트(GW) 규모로 구체화됐다. 예상 수주 규모는 180조~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추가 증가 상승 요인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국토부 예산은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기금은 전년 대비 6.2조원 증액됐으며, 그 중 주택공급 관련한 예산이 8.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아영 기자 aykir@

서학개미 머크 사고 가상자산주도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머크 순매수 1위 암 백신 임상 호재 고위험주·배당ETF 동시 매수 확대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처가 한층 다양해졌다. 암 백신 임상 호재를 등에 업은 머크를 가장 많이 사들인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주와 스페이스X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도 자금이 몰렸다. 동시에 배당주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순매수 상위권에 오르면서 공격과 안정형 투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결제 기준 지난달 24~31

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는 미국 제약사 머크로 집계됐다. 순매수 결 제액은 9957만달러였다. 이어 서학개미들은 스트래티지(엡타이코스트래티지)를 9126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머크 매수세에는 최근 발표된 암 백신 임상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머크는 모더나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 메신저리보핵산(mRNA) 암 백신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 단순한 제약주 방어수요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개별 호재를 확인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형 전환금융 현장 안착 본격화

2028년 기후공시 단계적 시행 탄소 다배출 기업 전환 지원

금융감독원이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기후공시를 금융회사의 대출·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2일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저탄소 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금융’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영국·일본·홍콩 금융감독기관과 HSBC·ING·ANZ·동경해상 등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후금융 정책과 관련 시장의 발전 방향, 금융회사의 기후위험 분석·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금융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재해가 가계와 기업 등 차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금융회사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신용·시장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콤·현대차증권 토큰증권 플랫폼 협력

제도 시행 앞두고 공동 인프라 구축 상품 발굴·계좌관리 공동 대응

코스콤과 현대차증권은 1일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대비해 양사의 업무·기술 역량을 결합하고, 토큰증권 발행 및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공동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연계 ▲토큰증권 기초자산과 상품 발굴 ▲발행 및 계좌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체화 ▲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한 공동 테스트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다수 증권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KoSTO’를 준비하고 있다. LG CNS와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관리 연계 테스트베드 실증을 마쳤으며, 12개 증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하은 기자

초대형 미디어월로 만나는 바다… 해진공, 해양문화 확대

국립해양박물관에 몰입형 공간 조성 가족 참여 ‘반응형 생태콘텐츠’ 제작 해양대와 ‘청소년탐험대’ 연례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민 친화적 방식을 통한 해양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초대형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탐험 행사도 정례화했다. 특히 최근 18m X 4m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월’ 및 ‘몰입형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바닷길의 역사부터 해양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부산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박물관에 디지털 해양 문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체험형 전시 공간에 이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하순 일반에 공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두 기관이 협업해 선보인 미디어아트 전시 ‘시대를 향해 하다’의 성공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해진공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해양역사·산업·미래가치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높



국립해양박물관에 조성된 미디어월

/해진공

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했다.

국립해양박물관 1층에 조성된 미디어월은 가로 18m·세로 4m 규모의 초대형 고해상도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자랑한다.

‘바다는 인류와 세계를 연결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닷길의 변화와 해양의 미래를 한 편의 짧은 영상으로 풀어냈다. 바다가 인류와 세계를 연결해 온 길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과거 바닷길에서 운하를 통한 항로 개척, 북극항로까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온 해양의 역사와

미래를 담았다.

아울러, 단순히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화면의 일부가 되어 바다와 교감할 수 있는 쌍방향 체험형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미디어월 앞을 지나가면 센서가 관람객의 위치를 인식한다. 북극곰·북극여우 등 북극 생물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이동하거나 반응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3층 미디어 전시실에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테마 전시공간 ‘푸른 심장, 맹그로브’이 마련됐다. 해양 환경 보

호의 메시지를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진공은 이번 미디어월 전시가 해양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친숙히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가족단위 방문객이 일상에서 바다의 가치와 가능성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바다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지난달 3박4일간의 해양 탐험 행사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국 청소년 80명이 참가하는 ‘2026 KOBC 바다이음 탐험대’ 발대식이 열렸다. 탐험대원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교실을 벗어나 해양 환경과 과학 기술, 해양 안전, 해양산업 및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미래 해양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진공의 인재양성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생존 수영, 실습선 승선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도 해양대의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탐험은 해양 탐험과 해양 심화, 해양 실전, 해양 리더 완성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올해 참가자들은 해양도시 부산과 해양산업을 이해하는 국립해양박물관 탐방을 시작으로, ▲생존 수영과 ▲해양안전 교육 ▲해양대 실습선 승선 ▲해양 과학기술 체험 ▲해양 생물 관찰 등을 체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수자원공사, 물기업 56곳과 해외 동반진출

‘해외 동반진출 네트워킹데이’ 개최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글로벌 산업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대전 본사에서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및 ‘아시아물위원회(AWC) 기업인연합회’ 회원사 등 국내 물기업 56개 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물관리 효율화, 물 재이용,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등 고도화된 물 기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사업 기회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물 인프라 산업의 특성상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해외 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네트워킹데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지에서의 기술 실증(테스트베드) 기회 확보와 실제 수요처 발굴, 현지 정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반진출’ 방식이 중소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핵심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국내 물기업 68개 사가 참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왔다. 해외 주요 기술 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현지 판로

개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2025년 참여기업들의 총 수출 실적은 1166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사는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사업 현황과 현지 사업 여건, 협력 가능 분야, 국내의 판로 지원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기업별 수출 역량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에서 직접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제공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당 협력 거점 확대

일반·소규모 협의체 4곳 추가 선정

한식진흥원이 ‘2026년 신규 해외한식당 협의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은 해외 한식당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현지 한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일반 해외한식당협의체 2개소와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2개소 등 총 4개 협의체를 지정했다. 중국 베이징과 대만 타이베이 내 단체(식당들)가 ‘일반 협의체’에, 스페인 마드리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단체가 ‘소규모 협의체’에 추가됐다.

해외한식당협의체는 해외 현지 한식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협력조직이다. 지역 내 한식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식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또 한식당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식진흥원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공개 모



프랑스 파리 소재 한식당 ‘순그릴마레’

/한식진흥원

집한 바 있다. 관할 지역 내 한식당 30개 이상이 참여하는 일반 협의체와 한식당 5개 이상 30개 미만인 소규모 협의체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총 4개 지역의 단체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한식당협의체는 기존 20개국 27곳에서 22개국 31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중국과 대만 수도 지역의 한식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페인 수도와 러시아 제2도시까지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의 내일, 솟품 109편에 담았다

농림축산부,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조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발랄한 뮤직비디오로 표현한 ‘촌에 살고 품에 산다’가 차지했다.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이 만들어갈 농촌의 미래를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주관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된 접수에는 총 10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참가자의 60%가량이 10~30대로 젊은 세대

의 호응이 특히 두드러졌다. 10대 학생팀부터 자녀와 함께 출품한 가족 단위 참여까지 이어지는 등 농촌의 미래를 살아갈 세대가 직접 농촌 공간의 내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형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농촌의 매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상작 10편에는 대상 1편(농식품부장관 상·300만 원)을 비롯해 도합 1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주말 낮에 가전 돌리면 전기료 감면

한전, 1kWh당 100원 캐시백 적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 낮 시간대로 가정의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전력(한전)은 지정 시간대에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을 9월~10월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봄·가을철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

대는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급증해 전력 공급 과잉불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전은 산업용에 주로 적용되던 수요관리 방식을 주거 부문으로 확대해 전력 사용 시간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적용 시간대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대상 가전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료관리

기 등 4종이다.

가전사 앱 플랫폼(스마트싱스·씽큐)을 통해 확인된 해당 시간대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이 적립되며, 이는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과 합산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한 뒤, 한전 및 보유 가전사의 전용 앱을 통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입 후 실적을 쌓은 고객 1106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공기청정기 등의 경품도 지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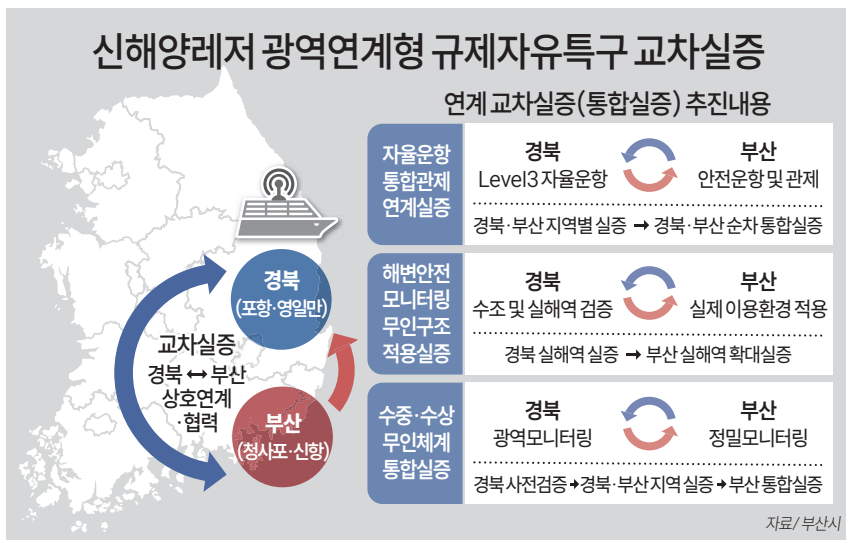
부산·경북, ‘신해양레저 특구’ 확보… 자율운항 선박 띄운다

청사포·포항 일원 등 특구 운영
미래 해양레저 관련 기술 실증
전재수 시장 “새로운 시장 열 것”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미래 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확보했다.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구조 기술 등의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원 등 682.23㎢를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했다. 특구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및 무인 수상구조로봇과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제 해역에서 실증한다.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



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돼 자율항법과 충돌 회피 및 자동 감속·정지 기능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는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

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현장 환경을 활용해 AI 위험판단과 해상 안전관제 및 무인 해양장비를 실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 및 장비 제작과

성능·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양 지역은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실증을 진행해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결과를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실증 기술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부산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3천796억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약 3만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중돼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영천역 환승센터 조형사업 조감도.

‘영천역 환승센터’ 국가 기본계획 반영

영천시 ‘광역교통 관문’ 활용 계획
김병삼 시장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영천시는 영천역 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환승체계 구축 계획이다.

영천역 환승센터는 완산동 영천역 인근에 총사업비 약 19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철도·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와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와 이용객 이동 동선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천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 교통 여건 개선과 대구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맞춰 영천역을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영천의 광역교통 관문’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민 이동 편의와 방문객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영천역 환승센터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은 영천이 광역교통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전남광주교육청 “현장 의견 들려주세요”

누리집 게시판 개설… 상시 의견 수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TP, ‘초광역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

울산·경남 등 동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상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 초광역프로젝트(R&D)’ 기술수요조사를 오는 4일까지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 중인 이 프로젝트의 전략 품목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 간 혁신 자원을 공유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력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급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초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키우려는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도로 산업별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필요성·범위·방향을 담은 품목 개요서를 마련한 뒤, 중앙 정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품목·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분야는 차세대해양모빌리티와 피지컬AI 기반 모빌리티 부품·제조 등

2개다. 차세대해양모빌리티 분야는 극한 환경용 선박 부품, 친환경 선박 기자재, 지능형 자율 제조를 육성 품목으로 삼고, 피지컬AI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모듈과 용접·성형·가공 등 자동차 제조 공정의 지능화·자율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의 동시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 간 기술·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TP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조사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4월 오후 6시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형필 부산TP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동남권 중소기업 간 협력과 혁신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세대해양모빌리티와 피지컬AI 기반 모빌리티 부품·제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동남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관내 축산물 영업장 특별점검

추석 앞두고 관리·감독 강화

창원시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추석 성수기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물 가공업과 포장처리업체 등 총 163개소로, 시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방위적 관리·감독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축산물 가공·포장 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이력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창원시

번호 미표시·허위 기재 여부 등이다.

강종순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일 ‘2026 명랑대첩축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 까지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26 명랑대첩축제’를 개최한다.

명랑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과 전라도 백성 이 힘을 모아 울돌목에서 거둔 명랑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올해 축제는 개막식과 주제공연, 대규모 출정 퍼레이드, 해상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김해시

64억 규모 전기차 보조금 지원

김해시가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사업 규모는 64억원으로 전기 승용차 500대·전기 화물차 25대·전기 승합차 10대 등 총 535대가 대상이며 접수는 전기 화물차 3일, 전기 승용차 10일부터 시작된다.

최대 지원액은 ▲전기 승용차 754만원 ▲전기 화물차 1365만원 ▲전기 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1억4950만원이며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구례군

‘아이언맨 구례’ 대회준비 만전

국내외 철인3종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본경기는 10월 4일에 진행되며, 참가 선수들은 수영 3.8km를 시작으로 사이클 180km와 마라톤 42.2km를 연이어 완주하는 총 226km의 풀코스에 도전한다.

구례군과 대한철인3종협회는 아이언맨TF팀을 구성해 ▲교통 ▲안전 ▲보급 ▲자원봉사 등 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 등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례(전남광주)=양수영 기자

구미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사업 접수

구미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선정된 기존 대상자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선정 후 기본 2년간 지원되며 6개월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이커머스, 오프라인 사업 속도… 상품경험 등 선순환 기대

무신사 홍대 뷰티매장 오픈 예정
컬리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 준비
에이블리 상품탐색 경험 확장 계획
오늘의집 팝업 등 서비스 연계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상품 판매를 넘어 온라인에서 쌓은 큐레이션과 개인화 역량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온라인 구매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와 컬리, 에이블리 등 주요 플랫폼들은 성수와 홍대, 강남 등 유동 인구와 젊은 층이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단독 매장과 쇼룸 등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들의 오프라인 진출은 온라인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맞물려 있다. 가격과 배송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 상품 판매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상품 경험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이다. 신선식품의 상태나 뷰티패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을 잇따라 열며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션 상품의 질감과 색상 등은 화면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플랫폼들은 소비자가 상품과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도록 한 뒤 이를 온라인 구매와 재구매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무신사는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는 올 2분기에만 국내외에서 12개 매장을 새로 열었다. 서울 성수

동에 문을 연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는 개점 68일 만에 누적 판매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역명 표지에 '무신사역'을 병기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 비중도 높다. 메가스토어 성수의 2분기 판매액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44%였으며, 스니커즈 전문 편집숍 '무신사 킥스'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70%

윤홍근 회장 “AI·데이터 기반 BBQ 체질개선”

BBQ 창립 31주년 기념식

AX 트랜스포메이션 등 3대 비전 제시
“BBQ만의 초격차 경쟁력 만들어 갈 것”

BBQ가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무기로 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는 외형 성장을 넘어, 첨단 IT 기술로 외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창립 3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AX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2.0 ▲서스테이너블 플랫폼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AX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동력은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혁신이다. 매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열린 BBQ 창립 3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모습.

/제너시스BBQ 그룹

장 관리부터 물류, 고객 응대, 품질 제고에 이르기까지 영업 전반에 AI를 이식해 가맹점주의 현장 부담을 대폭 줄인다.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려 전 세계 어디서나 BBQ 특유의 일관된 맛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영토 확장 방식도 고도화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2.0’으로 BBQ 고유의 맛과 운영 기준은 철저히 사수하되 각국의 식문화와 유통망에 맞춘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푸드테크와 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외식 생태계를 만드는 ‘서스테이너블 플랫폼’도 소개했다. 조리 로봇과 친환경 주방 설비를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매장을 조성해 글로벌 F&B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넓혀갈 계획이다.

윤홍근 회장은 “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BBQ만의 맛과 품질, 브랜드 철학을 지키면서 현지 시장에 맞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와 데이터, 인재와 시스템을 결합해 글로벌 F&B 시장을 선도하고 BBQ만의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CJ온스타일, 8일 ‘온트너’ 출시… 콘텐츠 커머스 사업 박차

크리에이터-브랜드 연결 플랫폼

CJ온스타일이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온트너(ONTNER)’를 오는 8일 정식 출시하고 크리에이터 기반 콘텐츠 커머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의 올해 상반기 크리에이터 협업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해 4.3배 규모로 확대됐다. 상반기 주문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협업 크리에이터 수는 3.2배, 협업 브랜드 수는 4.3배 증가했다.

CJ온스타일은 현재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드엘리사’, 22년차 살림 전문가 ‘까사림’, 리빙 크리에이터 ‘다다살림’ 등과 협업하고 있다. 일부 크리에이터 연계 모

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1시간 만에 주문액 30억원을 기록했다.

온트너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특성과 팬덤, 판매 성과 등을 분석하고 상품 콘셉트와 고객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크리에이터와 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리워드 링크 기반의 아フィリエイト(Affiliate)를 비롯해 공동구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광고 등 브랜드 캠페인도 연계한다.

매칭이 성사되면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제작과 팬덤 소통을 담당하고 CJ온스타일은 상품 소싱부터 콘텐츠 판매·배송·고객 응대 등 커머스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브랜드는 상품 특성에 맞는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협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콘텐츠 반응과 상품·고객·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성과가 높은 크리에이터와 상품의 조합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크리에이터는 ‘까사로그’, ‘드엘리사’적인 시선’ 등 자체 커머스 IP(지식재산권)로 육성한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검색·비교하는 방식에서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통해 상품을 접하는 ‘발견형 쇼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와 숏폼에 이어 크리에이터의 취향과 전문성, 팬덤을 콘텐츠 커머스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온트너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간 협업을 확대하고 관련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도 넓힌다. 향후 온트너에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매칭과 성과 예측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에 육박했다.

무신사는 뷰티 부문에서도 오프라인 사업을 확대한다. 오는 9월 서울 홍대에 첫 뷰티 단독 매장을 열고 11월에는 성수동에 추가 출점할 예정이다. 자체 브랜드(PB)를 비롯한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수요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컬리도 설립 11년 만에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자체 매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성수동 체험 공간이나 단기 행사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상설 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강남 매장은 상품을 대량으로 진열하는 기존 마트보다 체험과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컬리가 선별한 신선 식품과 ‘뷰티컬리’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온라인 구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과일과 채소의 상태나 화장품의 향·질감처럼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를 오프라인에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확보한 고객 경험을 온라인 구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송

과정의 품질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배송 과정에서 상품 훼손이나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일관된 상품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에이블리는 오는 10월 개점을 목표로 서울 성수동에 첫 오프라인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서 축적한 쇼핑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술을 오프라인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선호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진열과 쇼룸 구성을 최적화하고 앱에서 제공하던 상품 탐색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도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오늘의집 북촌’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제품을 전시하고 앱 이용자 투표를 거쳐 실제 상품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오프라인 진출이 단순한 판매 채널 확대에서 벗어나 상품 체험과 콘텐츠, 온라인 구매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리아, ‘리아 불고기 레드’ 선택

롯데리아가 한국인의 매운 맛을 담은 신 메뉴 ‘리아 불고기 레드’를 출시했다. 롯데GRS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숙대입구역점에서 ‘리아 불고기 레드’ 출시 행사를 가졌다. 새롭게 출시한 ‘리아 불고기 레드’와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는 기존 리아 불고기의 달콤한 풍미에 청양고추를 활용한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롯데百, ‘더콘란샵 공간 프로젝트’ 진행

베르너 팬톤·다이도 모리야마 작품 소개

롯데백화점 더콘란샵, 본점 외관서 베르너 팬톤·다이도 모리야마 작품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이 4일부터 약 한 달간 디자인과 예술을 주제로 한 ‘더콘란샵 공간 프로젝트(TCS Space Project)’를 진행한다.

‘더콘란샵 공간 프로젝트’는 백화점 공간을 활용해 디자인과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본점 외관을 대형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매장 내 팝업 등을 연계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디자인과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프로젝트는 ‘컬러(Color)’와 ‘모노크롬(Monochrome)’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덴마크 디자이너 ‘베르너 팬톤(Verner Pantan)’과 일본 사진작가 ‘다이도 모리야마(Daido Moriyama)’의 작품을 차례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에는 팬톤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를 선보이며 1층 팝업존에

서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체어 컬렉션을 전개한다. 10월 16일에는 팬톤의 딸 카린 팬톤(Carin Pantan)이 참여하는 토크 세션을 열어 팬톤의 삶과 디자인 철학을 소개한다. 더콘란샵 강남점 1층에서도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베르너 팬톤 팝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 테마인 ‘모노크롬’은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이도 모리야마의 작품으로 꾸민다.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에는 모리야마의 스트리트 사진을 전시해 작품과 실제 도시 풍경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한다. 본점 1층 팝업 애비뉴에서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100평 규모의 팝업을 열고 오리지널 작품과 대형 전시 설치를 선보인다. 더콘란샵과 협업해 제작한 굿즈도 함께 판매한다.

더콘란샵은 향후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과 사진, 예술, 음악 등으로 문화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디자이너 초청 토크 세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MCM, 김창옥 개인전 전면에… 키워드 ‘장인정신·위로’

현대 패션-동양 전통공예에 결합
김창옥 작가 ‘울다’ 등 신작 공개
김해리 대표 “깊이있는 경험 제공”

“작업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비워지고 필요한 생각만 남았다. 작업 과정은 위로, 작품은 위로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이다”.

끊임없는 잡념과 불안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 말 대신 옷칠로 비움의 위로를 전한다.

강연가 김창옥의 첫 개인전을 전면에 내세운 MCM이 패션과 동양 전통 공예를 결합한 색다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글로벌 미술주간 행사 ‘프리즈워크 서울’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MCM은 치열한 아트 마케팅 경쟁 속에서 ‘장인정신’과 ‘위로’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김창옥의 작가 데뷔전을 함께하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오프라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MCM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MCM HAUS에서 ‘MCM X 김창옥, 패션과 예술의 만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창옥의 첫 미술 개인전 ‘김창옥: 위로의



2일 MCM HAUS 전시실에서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창옥 작가(오른쪽)와 김해리 MCM 대표(왼쪽). /MCM

흔적’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전시는 오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MCHAUS에서 열린다.

◆옷칠 작업이 준 ‘단생각’의 위로

20여 년간 강연가로 활동하며 ‘말’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김창옥은 제주도 작업실에서 지난 6년간 옷칠 작업에 몰두해왔다. 성악을 전공한 그가 붓과 옷 수액을 들게 된 것은 ‘생존과 치유’ 때문이었다. 김창옥은 “가사님은 어디서 위로받느냐”는 질문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은 잘 풀렸지만 내면은 건강



서울 강남구 청담동 MCM HAUS 내 ‘김창옥: 위로의 흔적’ 전시장의 모습. /김수정 기자

하지 않음을 느꼈고 목마른 동물이 우물을 찾듯 작업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왜 옷이냐’는 질문에 그는 “옷 작업은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이라며 “칠하고 다듬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복잡한 생각이 비워졌다”고 했다. “옷칠을 하면서 생각이 단(短)해졌다”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단생각’이라고 정의했다.

옷칠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에서 수천 년간 발전해 온 대표적인 전통 공예 기술이다. 한국에서는 전복 껍데기로 장식한 나전칠기 형식의 옷 공예가 발전해왔다. 김창옥은 전통 나전칠기

의 화려함 대신 알루미늄 판재와 옷 수액만을 활용해 옷 자체의 깊은 빛깔을 연출했다. 그는 옷을 덧바르고 기다리는 과정의 반복, 선 하나를 그을 때 전신을 집중해야 하는 긴장 속에서 잡념이 사라지는 최고의 위로를 받았으며 작업 과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울다’와 ‘선 없는 선’도 공개한다. 김창옥은 “스승인 전영복 칠예가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나는 칠쟁이나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다” 전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덧칠해 옷칠 고유의 깊은 빛깔을 완성하듯, 이번 전시

는 ‘당신의 빛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건네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MCM, ‘브랜드 DNA’ 판매하는 공간으로

MCM은 옷을 현대적 추상 미술로 승화시킨 김창옥과 손잡으며 브랜드 고유의 글로벌 헤리티지와 장인정신을 결합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해리 MCM 대표는 김창옥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희생이 담긴 옷 작업을 접하고 먼저 협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상품만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브랜드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는 시대”라며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한 화제성 마케팅을 넘어, MCM의 유산과 어울리는 원석 같은 작가를 발굴해 깊이있는 경험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독일 본사 디렉터 역시 김창옥이 선보인 옷칠의 강렬한 물성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김창옥의 작품과 MCM의 상품 카테고리리를 연계할 계획도 언급했다. 김창옥 역시 “MCM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작업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 ‘TR-AX’ 집중 활용

엔비디아 AI 가속기 ‘B200’ 128장 도입
이동훈 사장 “연구개발 속도·효율 개선”

SK바이오팜이 엔비디아(NVIDIA)의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 인공지능(AI) 가속기 ‘B200’ 128장을 도입해 대규모 자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개발 전 과정의 혁신과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B200 128장의 연산 성능은 FP8 기준 초당 576페타플롭스(PFLOPS), 약 0.58엑사플롭스에 달한다. SK바이

오팜은 대규모 연산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 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은 SK텔레콤이 구축한 국내 최초 B200 기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해인’을 통해 이뤄졌다. SK바이오팜은 회사의 AX 성장 전략에 따라 GPUaaS를 활용해 필요한 연산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주요 AI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이번 AI 인프라를 중개 연구의 AI 전환을 의미하는 ‘TR-AX(Translational Research-AI Transformation)’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TR-AX는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단계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SK바이오팜의 핵심 연구 역량이다. SK바이오팜은 자체 확보한 특허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제 연구 과제에 적용해 중개연구를 비롯해 질환·타깃·화합물 전반에 걸친 연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고, 독자적인 AI 활용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자체 통제가 가능한 인프라에서 운용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강화될

관련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투자를 내부 연구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대규모 자체 AI 인프라는 미래 신약개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글로벌 수준의 B200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약 초기 연구개발의 핵심 역량인 TR-AX를 한층 강화하고,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AI 활용을 극대화해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



덴트릭스 크러쉬 40주년 한정판 /동국제약

동국제약 덴트릭스 크러쉬 한정판

동국제약이 구취관리 브랜드 ‘덴트릭스 크러쉬’에서 버블보를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버블보 캐릭터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한정판은 덴트릭스 크러쉬 농축치약, 덴트릭스 크러쉬 민트볼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덴트릭스 크러쉬 칫솔, 미니 치실 등도 선보인다. 농축치약, 칫솔, 미니치실을 담은 ‘여행용 양치세트’는 버블보 캐릭터를 함께 증정한다. /이청하 기자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사진)가 최근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상근이사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김영주 교수는 의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 위원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영주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추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사로 활동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풍부한 임상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바이오 분야의 실용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s23@



형지글로벌, ‘까스텔바작’ 앞세워 유럽시장 재진출

프로메코 파트너십 MOU 체결

형지글로벌이 프랑스 출신 ‘까스텔바작’을 앞세워 유럽 시장 재진출에 나선다.

형지글로벌은 지난 1일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서 유럽 제조·유통 전문 기업 ‘프로메코’와 까스텔바작의 유럽 라이선스 및 통합 유통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준호 형지글로벌 대표이사과 카림 레드잘 프로메코 대표가 참석했다. 형지글로벌은 이번 협약이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정부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며 쌓은 현지 네트워크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로 출발해 지난 2016년 형지에 인수된 까스텔바작이



지난 1일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최준호 형지글로벌 대표이사(오른쪽)와 카림 레드잘 프로메코 대표(왼쪽)의 모습. /형지글로벌

출발지인 유럽으로 다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형지글로벌은 프로메코와 유럽 전역의 상표 사용 및 통합 유통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현지 맞춤형 생산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패션 의류·잡

화를 비롯해 홈 텍스타일, 리빙, 홈 프래그런스, 테크웨어 등 패션 제품의 유통 및 판매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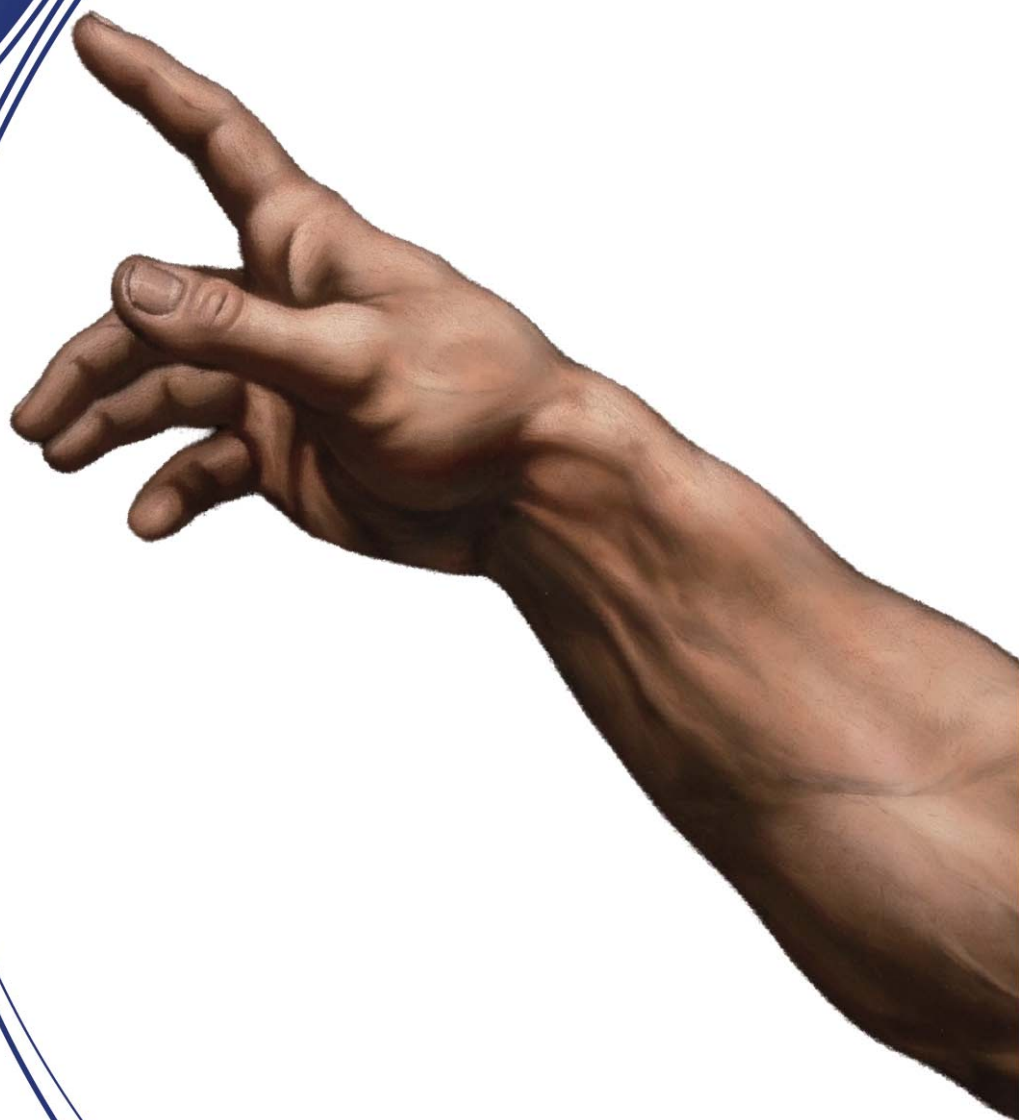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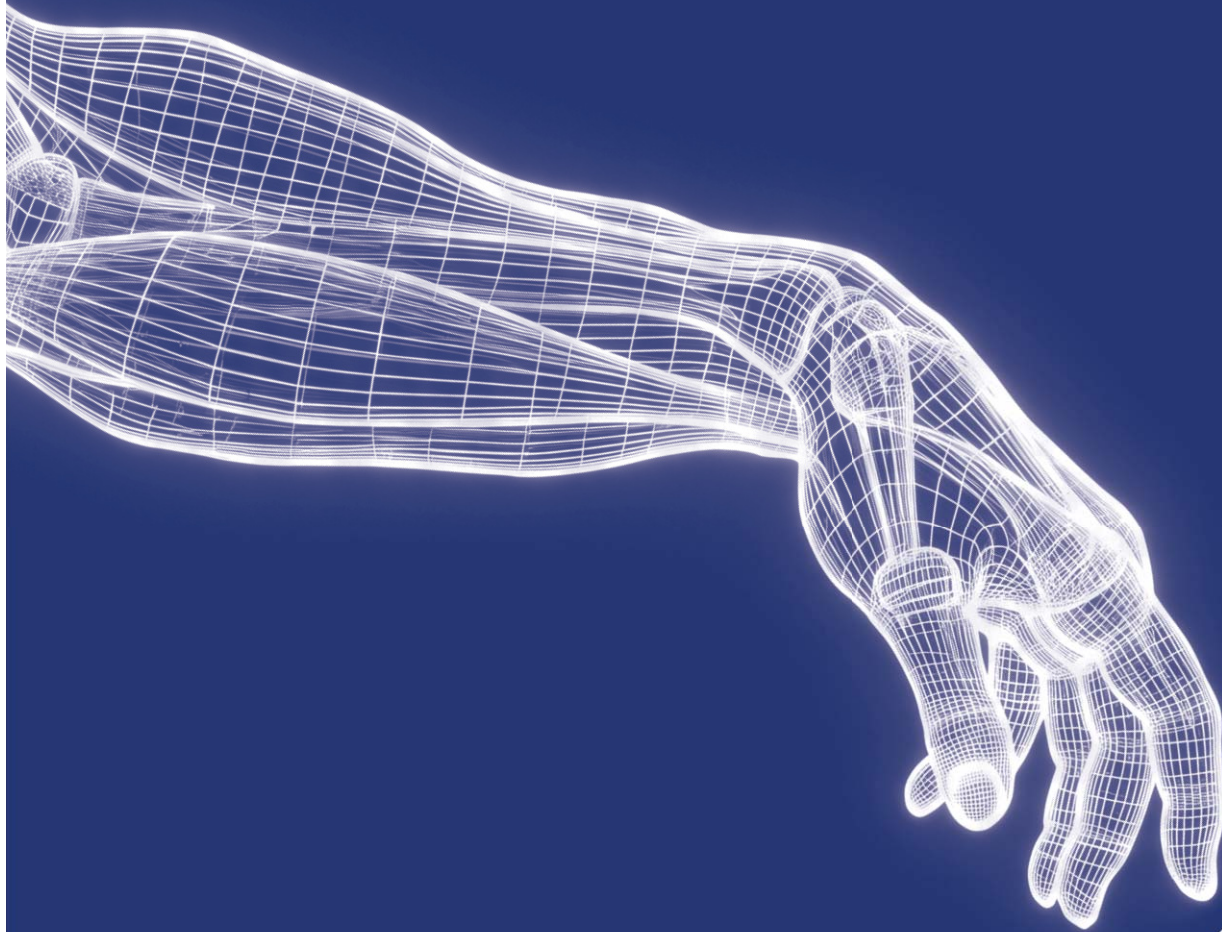
카림 레드잘 대표는 방한 기간 도곡직영점과 주요 백화점을 둘러보며 실무 점검을 다졌다. 카림 레드잘 대표는 “프랑스 오리지널 브랜드의 예술성에 K패션의 감각이 더해진 까스텔바작을 유럽 유통망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까스텔바작의 브랜드 헤리티지에 K-패션의 기획·경영 역량을 결합해 유럽 본토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입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상표 수출을 넘어 현지 맞춤형 상품 기획과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기술에 창의적 감각을 더하다

AI 초융합대학

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울캠퍼스 + 천안캠퍼스

2026. 9. 7(월) 10:00 ~ 9. 11(금) 18:00



이태석 신부 제자들, 삼성서울병원 의료 현장 방문

삼성서울병원이 고(故)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 제자 9명을 초청해 한국의 첨단 의료현장을 소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 제자 9명이 김지원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구진성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KCC·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맞손

KCC가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KCC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에서 4번째부터)한국에너지재단 이태동 이사장, KCC 서호영 상무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교원그룹,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긴급구호

교원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이재민과 고객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수해피해 지역 긴급구호 물품 기부 및 피해 고객 지원은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평생인연' 가치를 바탕으로 26번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교원그룹이 전달한 긴급구호 물품. /교원그룹



코카콜라, 신흥시장 상인 이야기 담은 전시 선포

코카-콜라가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과의 협업을 이어간다. 지난해 시장 공간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상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열고 지역 상권과의 협업 범위를 넓힌다. '신흥시장 사람들 with 코카-콜라' 전시에 함께한 신흥시장 상인들. /코카콜라



동원홈푸드 금천미트,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가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축산물 도매 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금천미트 양주석 사업부장이 서경덕 한국소비자포럼 소비자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홈푸드

SK이노 GMF, 발달장애 음악인 3313명에 무대 선물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 10주년 대상에 남산ART 오케스트라 공연 넘어 사회적 성취 도와

SK이노베이션이 발달장애인 음악인의 발걸음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GMF)가 10주년을 맞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약 1000석 규모의 객석은 3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GMF는 SK이노베이션의 후원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지난 10년간 326개 팀, 3313명의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GMF 시상식 후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왼쪽에서 11번째)와 수상자 및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발달장애인 연주자가 참가했으며 누적 관객은 약 4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예선에 참가한 36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대상은 '남산ART 오케스트라'가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라운 트리오', 우

수상은 '국악예술단 손울림'과 '지킴밴드', 장려상은 '하비앙포'와 '하음오케스트라'에 돌아갔다.

GMF 참가자 가운데 약 140명은 음악대학 진학과 취업, 창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강충식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발

달장애 음악인의 재능이 교육과 공연을 넘어 사회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GMF가 SK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한국엔컴퍼니, 저소득 가정에 차량 나눔

경기도 거주자, 내달 2일까지 신청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저소득 가정에 차량을 지원해 이동 편의와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초록우산과 함께 '2026 차량나눔 2.0' 지원사업 공모를 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가정에는 친환경 차량 6대 내외를 지원하는 한편, 차량 공유 플랫폼 등록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으로, 신청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초록우산 홈페이지 소식·공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안내된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추가 서류 검증과 면접 심사,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11월 중 최종 지원 가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엔컴퍼니 본사에서 기증식을 진행하고 차량 수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청호그룹, 최진환 신임 총괄대표 선임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 CEO 겸직

사모펀드 칼라일로 주인이 바뀐 청호그룹이 그룹 지주사인 크리스탈홀딩스코리아의 최고경영자(CEO) 겸 청호그룹 총괄대표로 최진환 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2일 청호그룹에 따르면 신임 최진환 총괄대표는 그룹 전반의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고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밀접히 협력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은 2026년 8월 청호그룹 인수를 완료한 바 있다.

청호그룹은 청호나이스를 비롯해 마이크로필터, 엠시엠, 나이스엔지니어링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경찰버스 냉각 기술 지원

자체 개발 '나노 쿨링 필름' 적용 현장 대응 인력 근무환경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이 폭염 속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앞서 소방관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온 데 이어 경찰까지 지원 영역을 넓히면서 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에서 1기동단 소속 경찰버스 2대에 자체 개발한 '나노 쿨링 필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나노 쿨링 필름은 태양열을 반사하는 기존 튜빙 기능에 더해 차량 내부의 적외선을 외부로 방사하는 기술을 적용한 첨단 소재다.

경찰버스는 기동대원들이 이동식 현장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폭염에 따른 실내 온도 상승이 업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정상 짙은 튜빙 적용이



서울 경찰청 기동단 유니버스 두 대에 '나노 쿨링 필름'을 부착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어려워 여름철 더위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술 적용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투과율 90%의 나노 쿨링 필름을 13, 14기동대 소속 유니버스 버스 2대의 측면과 후면 유리창에 시공했다. 앞서 진행한 실차 비교 평가에서는 필름 적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평균 2~3도 낮은 실내 온도를 유지했으며,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전석에서는 최대 7도 가까운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2일 경남 하동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김현수 하동군수,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진공

중진공, 하동 기업 현장서 애로 청취

하동군과 손잡고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하동군과 손잡고 유망 지역기업 애로 해결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김현수 하동군수 등과 2일 오후 하동군 진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유망기업의 혁신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에 있는 K-푸드 및 환경 분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마두 농업회

사법인 오천호 대표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강화 ▲직원 장기재직 유도를 뒷받침할 인력지원 확대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체인 조은환경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특허 확보와 R&D 과제 수행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자유를 잃은 시장, 기회를 잃은 세대”



기 고

박 함 윷
성동구의회의원

집주인에게는 팔지 못할 족쇄가, 청년에게는 사지 못할 형벌이 내려졌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누적된 징벌적 세제와 대출 억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직접 집어삼킨 탓이다. 이에 자산을 지키려는 기존 보유자의 합리적 대응은 거래 동결로 이어졌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유통이 막히면서 자립을 꿈꾸는 청년 세대는 주거 이동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전능주의가 빚어낸 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문제의 직격탄은 근로소득으로 계층 이동을 꿈꾸던 무주택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핵심은 높은 거래세를 낮춰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통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개편에서 거래세 인하는 쪽뿐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가주택 소유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전가했다. 과도한 거래세에 가로막힌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꼭 쥐고

버티는 ‘매물 잠금’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결국 거래 퇴로를 막아둔 상태에서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얹어, 현금 부자의 상급지 독점은 방치한 채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금융 사다리만 끊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사다리가 끊겨 매매 시장에서 뒹겨 나간 청년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2차 충격을 맞는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과도한 입법 규제와 가격 개입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현장의 반응은 냉혹하다. 매매 순환이 끊기고 임대인에 대한 세제 부담마저 가중되자, 임대차 시장은 양질의 전세를 대폭 줄이고 급격히 월세로 전환한다.

집주인의 조세 회피와 비용 전가가 소형 주택으로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매달마다 혈땀이며 고비용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아놓고 고액 월세까지 강요받는 이중고에 갇힌 꼴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전월세 매물 급감과 주거비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과 같

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적 시기에 맞춰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안 개정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만약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섣불리로 누더기 입법 규제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상화의 출발점은 시장 주체들을 통제 대상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다시 기회와 사다리를 놓아주는 데 있다. 높은 거래세를 인하여 시장의 잠긴 매물을 풀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과도한 임대차 규제와 세제 압박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무주택 청년층에게는 미래 소득을 반영한 DSR 적용 확대와 장기 정책 모기지 제공 등의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정당한 재산권 존중과 내 집 마련이라는 합리적 열망은 공존해야 할 상생의 가치다. 정부가 규제 전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복원할 때 비로소 멈춰 섰던 주거 사다리가 움직이고, 청년이 다시 희망을 품는 건강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성동구의회 의원

제우스의 법



기지 수첩

서 예 진
〈정치부〉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제우스의 법’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크세니아(xenia·환대)’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주고, 손님은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제우스의 법’ 혹은 ‘크세니아’의 골자다.

영화에선 ‘제우스의 법’이 무너지는 걸 ‘문명의 붕괴’로 비유한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끝낸 자신의 전략이 붕괴의 시작이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이미 붕괴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었고, 트로이 전쟁은 그 결과였을 뿐이다.

2026년의 정치는 어떨까. ‘제우스의 법’이 무너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우스의 법’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신화의 최저선’이다. 이게 깨지면 사회는 전쟁터가 된다.

지금 한국 정치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조롱하는 데 익숙해졌다. 특정 지역은 동료 시민이 아니라 조롱해도 되는 표밭처럼 취급된다. 누군가의 고통은 밭이 되고, 누군가의 비극은 농담이 된다.

원래 정치라는 행위는 거칠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은 비천한 행동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목표는 고귀해야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지금은 고귀함은 사라지고 비천함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제도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서로가 최소한의 규칙은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통합’이라는 구호가 아닐 수도 있다. 가장 낮은 곳의 신뢰, 최저선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사람을 지역으로 낙인찍지 말 것. 반대자를 괴물로 만들지 말 것. 비극을 조롱하지 말 것. 권력을 가졌다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 틀린 말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 것. 이 정도의 규칙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세계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도 있었고, 손님을 잡아먹는 자도 있었다. 문명과 야만은 그 지점에서 갈랐다. 손님을 맞이하는 자와 잡아먹는 자, 법을 지키는 자와 힘만 믿는 자. 2026년의 우리는 어느 쪽인가. 제우스의 법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문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7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60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72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8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49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61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73년생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위엄이 있고 리더십이 뛰어나 지도자격입니다.



50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세요. 62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4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86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51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63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되겠습니다. 75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87년생 친구에게 언행을 조심하세요.



52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4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6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88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53년생 돈에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65년생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77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89년생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54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78년생 기본 좋은 날입니다. 9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55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은 적겠습니다. 67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79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91년생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56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운입니다. 80년생 돈을 쫓아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92년생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57년생 오늘 한 계획은 내일로 미루세요. 69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81년생 전진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생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58년생 언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70년생 수단과 방법을 지금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82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94년생 오늘날은 즐겁게 지내도록 하세요.



59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바를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71년생 소극적인 자세가 유리하겠습니다. 83년생 기본 좋은 하루로 생동하는 날입니다. 95년생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연 만들기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공합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흥미롭다. 평소에는 사주나 공합을 크게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막상 결혼이 가까워지면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공합을 단순한 흥미로 여기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달라진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니 조금이라도 더 신중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는 이성을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사주와 공합을 보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사주 공합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혼할 때가 되어야 공합을 보는 기존 세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요즘 젊은 세대의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성향이 전혀 다른 상대방과 억지로 맞추려 애쓰다가 상처만 남긴 채 헤어지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논리다. 성향이 비슷하면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고 갈등이 생겨도 부드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성을 만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는 사주를 미신이나 금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 생활에 참고하기 좋은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맹신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활용하는 유연성이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고 대화의 소재로 삼기도 한다. 좋은 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좋은 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간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토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2	9	8	2	6	8	1
9	1	6	7	8	2	9	8	2
2	8	1	6	9	7	9	2	9
7	8	8	2	9	9	2	1	6
1	9	9	8	2	6	8	2	7
2	6	2	8	1	7	8	9	9
8	2	9	6	2	1	9	7	8
8	2	7	2	9	8	1	6	9
6	9	1	9	7	8	2	2	8

9	1	6	2	9	8	8	2	7
8	8	7	9	2	1	2	9	6
9	2	1	8	6	7	1	8	9
8	6	9	1	9	2	7	8	2
2	9	8	7	2	6	9	1	8
1	7	2	8	8	9	9	6	2
7	2	9	9	8	8	6	2	1
2	8	8	6	1	9	2	7	9
6	9	1	2	7	2	8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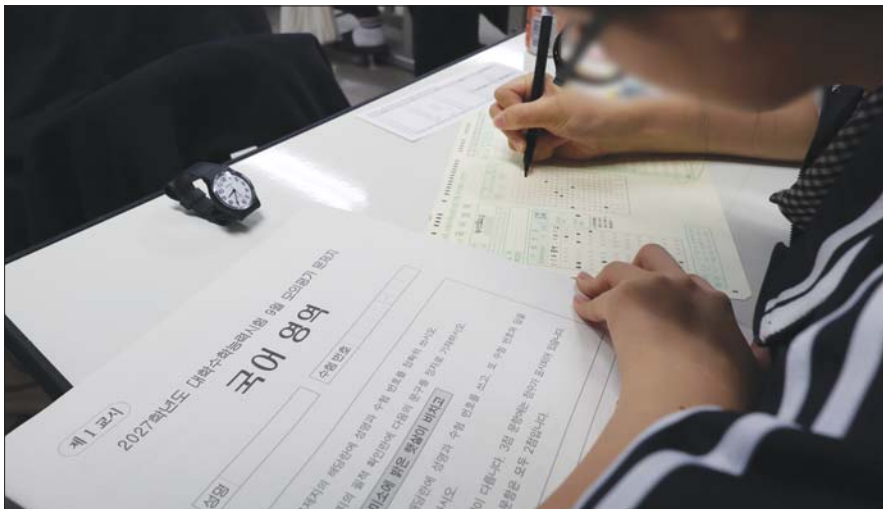
‘수능 가늠자’ 9월 모평, 영어 쉽고 국어·수학은 변별력 확보

국어·수학 6월 모평보다 어려워져
공통과목·고난도문항 변별력 확보
영어, 체감 난이도↓… 상위권 영향
평가원 “공교육 내 출제에 중점 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2일 치러진 가운데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수학은 공통과목과 주요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한 반면, 영어는 전반적인 난도가 낮아지면서 상위권 변별력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어, 6월보다 난해 ‘독서 문학’ 부담
국어영역은 쉽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추론적 사고와 선택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이날 국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고 올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9월 모의평가일인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시스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지문의 정보량과 구조 자체는 크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지문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추론해야 하는 문항을 공통·선택과목에 두루 배치한 것으로 봤다.

입시업계도 6월보다 체감 난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며 “쉽게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본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독서와 문학 가운데 문학에서 상대적으로 풀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분석됐다. 임 대표는 기존 출제 방식과 다소 다른 유형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수학, 공통은 난도 ↑…선택은 평이
수학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통과목의 체감 난도가 높아진 반면 선택과목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계산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념과 원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을 통해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수능보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늘어난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지난해 본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며 “공통 문항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과목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어, 지난해 수능·6월보다 쉬워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

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유형 없이 기존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을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은 “전체적으로 적정 난이도였다”고 분석했다.

입시업계는 체감 난도가 더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봤다. 임 대표는 “매우 어려웠던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본수능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며 “어휘와 문장 구조, 소재, 지문 길이 모두 쉬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영어 1등급 비율은 4.1%, 지난해 수능은 3.1%였다. 종로학원은 이번 시험이 이보다 쉬워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일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립대 옆 180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동대문구 전농동 신통기획 확정
지역·대학 잇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립대와 맞닿은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최고 35층,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정비하고, 사업지의 25.7%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재배치해 공원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축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대상지는 전농로·망우로·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동측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2%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에서 지역과 대학을 잇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릉지



를 고려한 테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주거·외부공간도 마련한다.

전농로34길과 접속하는 전농로에는 신호차로를 신설해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농로에는 가감속차로와 버스베이를 확보한다.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을 확폭해 양방 통행이 가능

하도록 하고 동측에는 폭 12m의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농로34길 일부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지하주차장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도로로 결정한다. 도로 전 구간에는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전면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대로29길은 기존 생활동선을 유지하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한다.

대상지에는 과거 청량리역 철도관사 조성구역이 포함돼 있으며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지의 25.7%인 약 1만8658㎡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를 재배치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7을 적용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해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섬 개수 재정비… 197개로 확정

유인섬 40개·무인도서 157개 확정

인천시는 유인섬 40개와 무인도서 157개를 합쳐 지역 내 섬 현황을 197개로 확정했다. 종전 인천시 관리 통계는 전체 168개였으며 이 가운데 유인섬은 40개와 무인도서 128개였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인도서 통계는 152개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여 정책 자료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혼선이 있었다.

시가 통계 정비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기관별 수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오류 가능성이 확인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과 자체 관리 목록을 비교했다.

검증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지번 중복 여부를 비롯한 기본 관리정보를 살

폈고 이후 각 도서의 경위도 정보를 토대로 GIS 좌표를 정밀하게 대조해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기존 인천시 통계에서 누락됐던 무인도서 29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관리 목록에 포함했지만 해양수산부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은 도서 5개도 별도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도서에 대한 추가 등재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무인도서 157개 체계를 마련했다.

정비된 통계는 앞으로 섬 보전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해양자원과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서도 정확도가 높아진 섬 현황 자료가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폴리텍대, ‘AI 직업교육’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네스코-유네북과 공동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 2일 서울 용산 정수 캠퍼스에서 ‘2026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네스코-유네북(UNESCO-UNEVOC)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유네스코-유네북은 1992년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센터이다. 150여 개국 220여 개 센터에서 세계 직업기술 교육훈련 정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시대, 국경을 넘어 기술과 인재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AI 전환에 따른 산업·직무 변화에 대응해 미래 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인간과 AI의 협업’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AI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적정 신뢰 및 검증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훈 폴리텍대 기획이사는 “글로벌 고용·노동 전환과 폴리텍의 진화” 주제 발표에서 “AI 융합역량, 평생 직업교육, 취업·창업 및 지속 성장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韓해외긴급구호대, 네팔 도착…“사전답사 후 오늘 숙영지로 이동” /사진 뉴스시스

▲美-이란 호르무즈 주도권 공방 격화…“보복에 보복” 고착화 우려

▲대만 국방부 “中 훈련, 대만 고립 초점…봉쇄 돌파 계획 구체화”

▲아이티서 강단에 납치된 한국인 2명 석방…“건강 양호”

▲대공격 예고인가…젤렌스키 “러 영공 사실상 폐쇄” 각국·항공사에 경고

▲크렘린 “11월 APEC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이커머스
오프라인으로
영역 확대
L1



Life

MCM
김창욱 작가
개인전 전면
L2



‘40년 제약’ 신뢰로 쌓은 보습장벽… 세계인 피부 지킨다

메가하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태평양제약 의학학적 경험에
아모레퍼시픽 피부과학 만나
5초에 1개씩 팔리는 보습크림
정통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지거나 심한 건조함으로 장벽이 무너졌을 때, 소비자들 이 망설임 없이 집어 드는 튜브가 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정통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스트라’의 아토티어365 크림이다.

2018년 처음 국내 뷰티 업계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제품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자극적인 광고 문구 대신 ‘손상 피부 장벽 개선’, ‘120시간 보습 지속’이라는 실증적 효능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 아토티어365 크림은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며 K더마 스킨케어를 대표하고 있다. 5초에 1개씩 팔리는 보습 크림의 탄생에는 40년을 뛰어넘는 제약 해리티지와 병의원 현장의 진심,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에 응답한 과감한 도전이 있다.

◆태평양제약서 시작된 ‘더마 DNA’

‘에스트라’라는 이름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풍요로운 생태계를 이루는 삼각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 에스추어리(Estuary)에서 유래했다. 1982년 설립된 태평양제약의 의학학적 경험에 아모레퍼시픽의 최첨단 피부과학 연구 역량이 더해졌다.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에스트라는 일시적인 윤기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대신 ‘근본적인 피부 건강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민감 피부는 단순히 학술적 질환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민감 피부 전문 브랜드로 발전해 왔다. 특히 에스트라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국내 60여 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8개 전문



연구회를 운영하며 얻은 현장의 인사이트에서 나온다. 1994년 설립된 아모레퍼시픽 의학연구소를 모태로 피부 장벽이 약해진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에스트라의 메디컬 디바이스(MD) 제품군은 국내 49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처방 목록에 올랐고 현재 전국 4100여 개 병의원에 입점해 있다.

◆고객 목소리에 응답한 ‘365’의 탄생

에스트라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병원화장품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병의원 채널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병원 방문 고객들의 입소문과 함께 소비자 요구가 이어졌다.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간 김에 사기는 좋은데 화장품만 사러 일부러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구매 편의성 문제였다.

에스트라는 병원 밖 일상에서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병원 전용으로 내놓은 보습 제품 아토티어, 트러블을 위한 테라크네, 피부 자생력을 개선해주는 리제담 등을 시판용으로 재연구개발했다. 365일 매일 관리하는 데일리 더마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품명에는 ‘365’를 붙였다. 2018년부터 국내 최대 헬

피부와 전문의, 자문연구회 운영 의약 전문성 갖춘 ‘MD’ 병원 입점 병원화장품 부문 11년 연속 1위

동남아 넘어 미국·유럽까지 진출 K-뷰티 독보적인 장벽 기술력 전파

스앤뷰티 스토어인 CJ올리브영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보습 캡슐이 눈에 보이는 신뢰

CJ올리브영 진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토티어365 크림’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민감성 피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크림 제형 속에 눈으로 확인되는 보습 캡슐 더마온이 체온에 부드럽게 녹아들며 피부에 강력한 장벽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보습 기능부터 사계절 내내 부담 없는 저자극 제형까지 수많은 소비자 후기를 양산했다. 상업적 성공은 글로벌 조사기관의 객관적 지표로도 증명됐다. 특히 병의원과 시판 시장 모두를 제패하고 있다. 올해 8월 에스트라는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집계에서 ‘대한민국 판매 1위 더마코스메틱 스킨케어 브랜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

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병원화장품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K더마 진정성으로 글로벌 시장 평정

아토티어365 크림의 다음 시선은 세계로 향했다. 2023년 일본을 시작으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도 안착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에서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400여 개 매장에 전격 입점했다. 입점 직후 아토티어365 크림은 미국 세포라 내 ‘TOP 5 모이스처라이저’에 이름을 올리며 간단한 복미 소비자를 확보했다. 같은 해 캐나다, 호주 등으로 영미권 영토를 넓혔다.

올해 들어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9개 국가 860여 개 세포라 매장으로 확장을 완성했다. 세포라의 대형 캠페인 ‘최신 스킨케어 이야기’를 통해 히어로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는 등 K뷰티의 독보적인 장벽 기술력을 유럽 대륙에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에스트라는 누적 1000만 개 판매 성과를 기념해 ‘진심은 피부로 느낀다’는 브랜드 철학을 공유했다. 오직 민감 피부 하나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40여 년의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에스트라는 피부 전문가들의 정밀한 의학적 지혜와 고객의 일상적 고민을 잇는 브랜드”라며 “병원 처방에서 시작해 세계인의 더마 제품이 된 아토티어365 크림을 앞세워 글로벌 더마 스킨케어 시장을 향한 혁신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아토티어365 하이드로 수딩크림(왼쪽)과 아토티어365 캡슐 토너.



CJ올리브영에 설치된 에스트라 매대.

/아모레퍼시픽



▲황희찬, 울버햄튼 떠나 샬케로 임대…5년 만에 독일 복귀
▲이현중·여준석 포함…남자 농구 대표팀, 나고야 AG 명단 확정 /사진 뉴시스

▲임성재, 통산 4번째 프리지던츠컵 출전…단장 추천으로 함류
▲배드민턴 남북 세계 1위 김원호·서승재, 중국 마스터스 32강 탈락 ‘충격’

▲고우석, 친정팀 LG와 5억원에 계약…“남은 경기 승리 위해 던지겠다”
▲MLB 에인절스, 아스널 구단주에 팔렸다…매각 규모 5조5000억원 ‘사상 최고’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폴딩8, 갤럭시 Z 폴딩8 울트라, 갤럭시 Z 폴딩8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